

성인용 연속 성경공부

누가복음: 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

<성경주해(공과책)>

지은이: 폴 파웰
네로이 캠프
네로이 펜톤

Baptist Way
달라스, 텍사스

청.장년 성경공부, 누가복음: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

Copyright©1999 BAPTISTWAY

미국 출판 저작권이 있습니다.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 허락 없이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BAPTISTWAY, **청.장년 성경공부**,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집행위원회

텍사스 침례교 총회 총무: William M. Pinson, Jr.

주(州) 선교 본부 위원장: James Semple

교회학교/제자훈련부 위원장: Bernard M. Spooner

한국어 집필 위원장: Timothy Kim

출판 고문: Ross West, Positive Difference Communications

초판발행: 2000년 3월

♣ 01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교사 혹은 학생일 경우

1. 주중에 일찍 준비하라,
2. 공부할 내용을 개괄적으로 훑어 보라, 목차와 머리말을 읽고, 공부할 각 단원의 도입부를 읽도록 하라. 각과가 어떻게 그 단원과 연관되어있는지 이해하며 각과를 끝까지 공부하도록 하라.
3. 각과에 해당되는 성경구절을 깊이 읽고 육상하도록 하라.(각 단원마다 저자가 좋아하는 번역본을 사용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번역본을 사용하여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4. 성경구절을 모두 읽고 난 후, 저자의 해석을 읽도록 하라. 그 해석은 여러분의 성경공부를 돋는데 목적이 있다.
5. 각과의 보충설명들을 읽도록 하라. 그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주며 많은 교훈을 줄 것이고, 육상하며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6. 각과의 질문들을 스스로 답해보도록 노력하라. 좀더 깊은 생각과 적용을 하게 하며 성경공부 자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교사일 경우

1.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실천해야 한다.
2. 첫 시간에는 각과마다의 학과일정을 언급하며 간단히 개요만을 설명한다. 4페이지에 있는 목차와 각과마다의 첫 페이지에 학과일정을 적게 한다.
3. 여러분은 *Baptist Standard* 나 인터넷에 제공된 많은 성경공부를 위한 도구들의 정보를 얻기 원할 것이다. *Baptist Standard* 를 구독하기 원하면 전화 214-630-4571로 연락하고, 인터넷 정보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기 원하면 baptistway@bgct.org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다른 참석자들도 이러한 정보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 각과마다 지침서 역할을 하는 *인도자 지침서*를 구입하라. 교사용 교재 자료들은 분반공부에 실제적이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제공한다.
5. 성경구절, 본문,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고,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다른 자료들을 이용해 각과를 공부함으로 성경공부를 위한 계획들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라.
6. 성경구절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구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라.

누가복음: 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

제 1 단원 -- 예수님의 복음전파에 대한 우리의 반응	7
제 1 과 :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 (누가복음 4:16-27)	8
제 2 과 :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 (누가복음 5:1-11, 27-28)	15
제 3 과 : 용서받은 사람들로서의 삶 (누가복음 7:36-50)	23
제 4 과 : 주님의 사역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임무 (누가복음 10:1-17)	31
 제 2 단원 --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39
제 5 과 :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0:25-37)	40
제 6 과 : 무엇이 더 중요한가? - 율법인가 사람인가? (누가복음 13:10-17)	48
제 7 과 :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누가복음 24:13-35)	55
제 8 과 : 누가 초대 받았는가? (누가복음 5:29-32; 14:12-15)	63
제 9 과 :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누가복음 15:11-32)	71
 제 3 단원 -- 당신의 우선 순위를 바로 하기	 79
제 10 과 : 제자리에 속한 것은 제자리에 놓기 (누가복음 16:13, 19-31)	80
제 11 과 : 나의 인생이 나에게 빛지지 않은 것을 인식하라 (누가복음 17:11-19)	89
제 12 과 : 당신이 진정 훌륭하다 해도 겸손하라 (누가복음 18:9-14)	97
제 13 과 :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신실 하라 (누가복음 22:39-48, 54-62)	104

머리말

누가복음: 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정말 좋아하셨을까? 초대교회 성도였던 누가는 사람들의 그같은 물음에 답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누가복음은 시작부분에서 그 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군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봇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누가복음 1:1-2)고 했다. 그러나 지금 누가에게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폈기에.....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1:3)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내력, 즉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 보냈다. 우리는 데오빌로라는 인물에 대해 충분하면서도 경험에서 나온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얼마나 멋진 이름인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누가복음이 처음 쓰여져 읽혀지기 시작했을 때는, 아마 예수님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50년은 더 지났을 것이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의 교훈에 대하여 그 당시 생존했던 사람들에게 일깨우고 있다. 누가는 또한 그들과 그들 교회에 말씀하셨던 엄청난 교훈에 대해 그 당시 사건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상기시키고 있다.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은 나름대로의 강조점이 있다. 이러한 강조점들은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 묘사한 글에서 비쳐진다. 누가복음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초대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모두들 참석해라. 진심이다.” 누가복음은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보여준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층 계급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다. 그들은 유대교 전통을 지키지 않았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죄인으로 취급당한 사람이었다. 또한 실제로 죄인이었다. 하층계급으로 취급당한 다른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억압당하거나, 혹은 여인이었다. 예수님께선 그들 모두를 사랑과 이해로 받아들이셨다.

누가복음은 또한 사회 정의에 대해 강조를 두며 특별히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특징은 이 책 첫 과인 “나사렛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설교”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루어진다(참조 1:46-55; 6:20-21; 7:11-17).

누가는 독자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기를 부탁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이 이해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인용된 성경구절들은 여러분이 누가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구절들은 텍사스 침례교인이 우선 해야할 우선 순위와 가치관과 관계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사건이나 가르침들은 예수님에 대한 누가의 특별한 통찰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제외하고선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른다. 순서 가운데 조정해야 하는 제 7 과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 공부는 언제 해도 괜찮겠지만, 특별히 텍사스를 위한 성경공부 책이 출판되는 부활절에 사용되도록 했다. 누가를 다른 때에 공부한다면, 이때에 제7과를 공부해야 할지 아니면 마지막 부분에서 공부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또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제8과로, 서로 관련 있는 주제를 다루면서 누가복음 5장의 구절을 누가복음 14장의 구절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 아래의 주석들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자료들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³

윌리암 바컬리. 누가복음. 매일성경공부. 증보판. 필라델피아: 웨스트 민스터 출판사, 1956.
다웰 L. 바크. “누가.”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6.

프레드 B. 크래다크. 누가. 해설책. 루이빌: 촌 낙스 출판사, 1990.
R. 알랜 컬페프. “누가복음.” The New Interpreter's Bible. 9권. 네쉬빌: 아빙돈 출판사, 1995.

헐쉘 H. 합스. 누가복음강해. 베이크 북 출판사, 그랜드 래피드, 1966.
네온 모리스. 누가.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y. Leicester, England: IVP, 1974.

로브트 H. 스테인. 누가. The New American Commentary. 24권. 네쉬빌, 테네시: 브로드만 출판사, 1992.

레이 셈멀스. 누가복음주석:예수님은 우주의 구세주. 웨이코, 텍사스: Word Books, 1972.
말콤 톨별트. “누가복음.” The Broadman Bible Commentary. 9권. 네쉬빌, 테네시: 브로드만 출판사, 1970.

-
1. NASB 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를 뜻하며 저작권이 The Lockman Foundation 1960, 1962, 1963, 1968, 1971, 1972, 1973, 1975, 1977, 1995에 있음
 2. NIV는 성경책:*New International Version*. 저작권 1973, 1978, 1984 국제성경사회에 의한 저작권. 잔드반 성경 출판사에 의해 출판됨
 3. 책을 열거하는 것은 저자들이나 BAPTISTWAY의 모든 비평들과 완전히 동의함을 의미하진 않는다.

제 1 단원

예수님의 복음전파에 대한 우리의 반응

유명한 역사가가 과연 어떤 인물이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랜 인상을 남겼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만약 한 인물의 위대성을 역사적 관점으로 판단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답했다.

우리는 너무나 뛰어난 한 인물에 대해 꼭 질문하게 된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는 무슨 일을 했는가?” 예수님에 대한 정체와 구속적 사명을 푸는 열쇠는 사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다.

복음서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단순히 자서전이 아니다. 줄거리도 아니다.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해주지만 4복음서들은 성장과정에 대해선 단지 몇 줄밖에 없다. 누가는 예수님이 8일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에 올랐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이상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의 얼굴 모양도 모른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열핏 언급을 하고 나서 누가는 예수님을 이미 공생애를 시작한 성년에 대해 묘사한다. 아마 4복음서의 3분의 1은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 분명히 저자들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죽으려 오셨다는 사실에 있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고 있는 한 선한 사람이 아니었다. 예수께선 사람들에게 가는 길을 찾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었다(누가복음1:35).

이번 단원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다룬다. 그가 누구인가 왜 그는 왔는 가라는 문제를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4 과에 걸쳐 우리는...

- ◆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누가복음 4:16-27)
- ◆ 제자로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누가복음 5:1-11, 27-28)
- ◆ 용서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배울 것이다.(누가복음 7:36-50)
- ◆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것처럼 예수 님은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깨닫게 될 것이다.(누가복음 10:1-17)

제 1 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

핵심본문: 누가복음 4:16-27

배경: 누가복음 4:14-30

♠ 주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 탐구질문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 학습목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려면 내가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텍사스의 우선 순위

- ◆ 텍사스와 국내 그리고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의 필요를 돌본다
- ◆ 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본문개요>

예수께선 고향 나사렛에서 그가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야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 오셨음을 선포하심으로 그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다.

제2차 세계 대전 시 무섭고 잔인했던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생존한 정신병의사 빅토르 프랭글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는 그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강제수용소에서 자유 함을 얻고 난 뒤,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찾는 데 있다고 믿고 정신적 사고를 정립하는 새로운 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그는 살아야 이유를 가진 사람은 거의 모두 그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어느 곳의 사상가들도 모든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삶의 의미 즉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예수님의 삶에 그런 확신과 권위가 스며 나오는 이유중의 하나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의 존재 목적이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예수님은 전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지상명령을 말씀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 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18-19)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고향인 나사렛에 방문했을 때였다. 전도자와 기적을 베푸는 자로서의 그의 명성은 이미 입증되었으며 소문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금 그는 자랐던 고향에 방문하기 위해 돌아왔다. 습관대로, 그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회당에 가셨다. 회당 장은 예수께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예수는 이사야 61:1-2 말씀인 이사야 책을 찾아 펴서 회중들에게 읽어 주었다. 그 구절은 메시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예수가 그 예언서 읽기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회중들에게 말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누가복음 4:21)

결국 예수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야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수는 그들이 기다렸던 구세주였다. 이사야에서 말한 구절은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말해준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할 때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청중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예수님은 구약으로부터 두 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하셨다. 하나는 엘리야의 생애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사의 생애를 통해서이다. 엘리야 때는 많은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게 해주시고 선지자를 살렸던 한 과부는 사렙다 과부였다. 그녀는 시돈에서 온 이방인이었다. 엘리사 때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동병자들이 있었지만 병고침을 받았던 한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고 그도 이방인이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화가 나서 예수님을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했다. 그들이 만약 할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아야 할 두 가지에 대해 가르쳐 준다. 그것은 모두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다는 것이다.

1) 예수는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다.

누가복음 4:18-19은 예수께서 오신 4가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 ◆ 예수는 해방을 위해 오셨다-“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 ◆ 예수는 조명을 위해 오셨다-“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 ◆ 예수는 자유를 위해 오셨다-“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 ◆ 예수는 구원을 위해 오셨다-“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네 단어 즉, 해방, 조명, 자유, 그리고 구원을 통해 우리는 왜 예수님은 처음 오셨는가라는 문제에 답할 수 있다. 또 예수께서 무엇이 가능하고,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오늘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염청난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해방을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4:18)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 이 포로된 자들은 감옥소에 있었던 자나 지금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죄의 속박에 있었던 자들이거나 지금 있는 자들이다. 예수께서 어디에서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요 8:34)고 말씀하셨다.

죄의 횡포는 어디에서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욕심이 그렇다. 우상숭배도 그렇다. 분노가 그것이다. 야망이 그것이다. 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선수다.

술고래는 알코올에 종이 되고 마약 중독자는 마약에 걸려 매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러나 완벽주의자는 너무 사소한 것에 관심이 많아 철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정하고 화를 잘 내게 된다.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부서질 것 같지 않은 나쁜 습관들이 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하고자 한다. 사실 그들은 변화될 것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한날 사냥하러 갔을 때 그의 발을 빼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리우스는 가장 유명한 의사들을 궁전으로 불러 모았다. 그러나 그들의 치료는 왕의 발을 오히려 악화시켰다. 왕은 7일 밤낮 자지를 못했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아주 보기 드문 의학기술을 소유한 크로톤의 테모시즈에 대해 왕에게 소개했다. 테모시즈는 노예였다. 그는 쇠사슬을 질질 끌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왕 앞에 왔다. 테모시즈는 왕의 발의 아픔을 들게 해주었고 치료를 해 주었다. 그 대가로, 다리우스 왕은 테모시즈에게 금 족쇄 두 쌍을 주었다. 그의 노예의 신분은 계속되었으나 그의 쇠사슬은 더 비싸고 화려했을 뿐이었다.

죄는 마치 그와 같다. 결국 속박한다. 때때로 그 쇠사슬은 아연으로 만들지만 때때로 그것은 금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똑같이 노예로 만든다. 하나의 차이점은 쇠사슬의 가격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과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 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예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은 또한 조명을 위해 오셨다. 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 오셨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눈먼 자가 있다고 한다. 육체적인 눈먼 자와 영적인 눈먼 자이다. 헨델이 **메시야**를 작곡하고 난 뒤 장님이 되었다. 그러나 헨델은 다른 것을 보는 능력이 줄어 든 반면에 그리스도를 보는 능력은 늘어났다고 고백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영생에 대해,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 처음 분명히 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좋지 않은 시력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모를 수도 있다.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대학교에 다닐 때, 나는 칠판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나는 생각하기 단지 창문에 비치는 빛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사람이 내가 가진 문제를 가졌다고 생각했다. 한날 나는 친구와 야구게임장에 갔다. 친구가 중간 담에 있는 표시판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물었다. “저 표시판이 보이니?” 친구가 대답하길, “물론이지, 너는 안보이니?” 내가 대답하길, “나는 그 글자를 못 읽겠어.” 그가 말했다. “너 눈이 나쁜 것이 틀림없어.” 그래서 나는 안파에 갔더니 그때야 안경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나는 시력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까지 몰랐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영적으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죄성을 모른다. 사람들은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안목이 없다. 사람들은 영적인 어두움에서 살며, 세상의 신과 사탄에 의해 시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할 수 있다(요한복음 8:12 참조). 만약 우리가 예수께 나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이다.

예수님은 또한 자유를 위해 오셨다. 예수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누가복음 4:18). 눌림은 노예의 몸과는 다르다. 삶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서진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벼룩에 의해 넘어질 뿐 아니라 그들의 환경이나 감정이나 태도나 그들의 견해에 의해 부서진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 함을 누릴 필요가 있다. 실망과 고독으로부터 그리고 소극적이며 의심으로부터, 또한 죄성으로부터 자유 함을 누릴 필요가 있다.

역사상 뛰어난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어니스트 훼밍웨이는 마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는 것처럼 느끼고, 배터리가 죽고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통처럼 외롭다고 슬퍼한 적이 있다. 그리고 난 뒤 그는 총으로 자살했다.

이혼을 했던 한 젊은 여인이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그녀가 말하길, “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나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 그같은 고독과 실망, 무의미 그리고 슬픔 등은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망가뜨린다. 예수님은 그같이 눌린 자들과 짓밟힌 자들을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열등감이나 나쁜 자세나, 부정적인 가치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 하늘의 별들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삶이 부서지려고 할 때 건져 주신다.

네 번째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이라.”(19절) 구원의 날이 가까워 왔음을 예수께선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제안, 약속, 공급하심이 지금 허용되어져 있다. 여러분이 오늘 받기 원한다면, 구원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된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오셨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예수께서 오셔야 했는가?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 죄의 죄사슬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 오셨고, 구원의 때와 영생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환경이나 감정이나 태도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해 오셨고, 구원의 날이 가까워 왔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다.

만약 여러분이 낙담해져 있다면 예수님께 오라. 만약 고칠 수 없는 벼룩에 물들려 있다면 예수께 오라. 만약 여러분이 부정적인 시각이나 나쁜 태도로 물들려있거나 눈멀어 있다면 예수께 오라. 여러분이 눌려있거나 삶이 우울하다면 예수께 오라.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삶을 찾기 원한다면 예수께 오라.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워준다.

2) 모든 민족에게 전하심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 실례인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을 인용할 때까지는 잘 받아들여졌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로 전해져야함을 가르쳐 준다. 두 가지 예는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강조한다.

엘리야 때, 그 나라에 몹시 가난한 과부가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살피고자 했을 때, 선지자를 시드온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신실히 믿는 한 이방여인에게 보내셨다(열왕기상 17:8-16).

엘리사 때, 고침을 받아야 할 문둥병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시리아에서 온 나아만 장군 뿐이다(열왕기하 5:1-14).

이 두 사람은 성별이 틀리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 한 사람은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남자이다. 그들은 다른 계급이었다. 한 사람은 비천한 과부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높은 정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다. 한 사람은 시드온이요 또 다른 사람은 시리아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필요를 가졌다. 한 사람은 음식이 필요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병고침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공통 분모는 그들의 믿음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결국 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이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높여준 것이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었고 다른 민족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예수가 마치 이방인도 마치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을 전했다. 그것은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었다. 메시야가 온 목적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이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다.

시인 칼 샌버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영어가운데 나쁜 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그의 대답은 딱 한 단어가 있다 것이다. 그것은 “베타적인”이란 단어이다. 베타적이란 의미는 여러분이 월등하다고 느끼고선 다른 사람들은 교제하거나 벗으로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쁘게도 베타적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우리들이나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수님께서 겪은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는 베타적이 아니라 포용적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며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져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과 가르침은 인종이나 계급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질문

-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셨는가? 어떻게 새로운 진리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셨는가? 어떻게 억눌림이나 좌절감으로부터 여러분을 일으켜 세웠는가?
-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져다 준 해방, 조명, 자유,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는가?
-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신앙적으로 배타적이 되는가?
- 여러분 주위에서 교회로부터 배타 당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야 될 사람들인가?
-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가?
- 가난하고 놀린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보충설명>

■ 나사렛

만약 예수께서 작은 한 촌락에서 자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수이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은 폴리스(주,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로 불렸다. 그 뜻은 읍 혹은 도시이다(누가복음 2:4). 그곳은 적어도 이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있었다. 한 큰길은 남북으로 뻗어있고 그 길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하였다. 동서로 뻗친 큰길을 통해서는 아라비아 여행자 순례단들이 이용하였고, 로마 군대가 로마 제국의 동쪽 국경으로 행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이며 많은 교통량의 도시에서 자랐다.

■ 회당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에서 시작되었다. 회당은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종교생활의 중심지였다. 회당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 당하고 유랑하고 있을 때 생겨났다(약597-538B.C.). 포로생활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의해서였고, 70년간 계속되었다. 가끔 있는 것처럼 좋은 일들은 나쁜 경험을 통해서온다. 적어도 세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이 포로생활을 통해 얻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고쳤다. 결코 다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상업을 배웠고 그 이후 위대한 무역상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세 번째는, 그들의 고국과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전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들은 지방마다 회당이라고 불리는 예배당을 세웠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율법은 열 명의 유대인 가족만 모여도 회당을 세우도록 했다. 그래서 각 도시와 마을에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번제 재물은 회당에 없었다. 성전은 회생제사를 위한 것이고 회당은 교육을 위한 장소였다.

회당 순서는 세부 분으로 나뉘어졌다. 첫 번째는 예배이다. 기도순서가 있었다. 두 번째는 말씀봉독이 있었다. 회중에서 뽑힌 자들은 율법과 예언서 말씀을 읽었다. 세 번째는 가르침이다. 해석이 항상 있었다.

회당에서 전문적인 사역자는 없었다. 그러나 아무한테나 말씀을 전하게 하진 않았다. 회당장은 어떤

저명한 사람을 초청해 말씀을 전하게 하고 토론과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된 방법이다. 이 회당은 예수님이 그의 사명과 사역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공개했던 장소가 되었다.

■ 예수의 종교적 생활

회당에 예수님의 방문은 그의 종교적 삶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보여낸다. 하나는 예수님은 정규적으로 예배에 참석했다. 예수님은 “자기 규례대로”(누가복음 4:16) 회당에 갔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말씀을 알았다. 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즉시 원하는 말씀을 봤다. 그 당시 그 말씀은 긴 두루마리에 적혀있었다. 오늘날의 성경처럼 몇 장 몇 절이라는 것이 없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해 있었기에 예수님이 원하신 정확한 구절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 적용 >

- ◀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 자체이거나 문제 가까이에서 살아간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 ◀ 많은 사람은 각자 이유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고 느낀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마찬가지로 그들을 위한 것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 ◀ 자만심, 무관심, 그리고 배타심은 우리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불행히도 우리 교회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것들은 뿌리 뽑혀야 하고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 ◀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짓밟히고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그러한 수단을 탐구하고 이용하기 시작해야 한다.

< 목상 >

- ◀ 이 네 단어 즉, 해방, 조명, 자유, 그리고 구원을 통해 우리는 왜 예수님은 처음 오셨는가라는 문제에 답할 수 있다. 또한 예수께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오늘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다.
- ◀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알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오신 이유 중에 하나이다..
- ◀ 하늘의 별들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삶이 부서지려고 할 때 건져 주신다.
- ◀ 하나님의 제안, 약속, 공급하심이 지금 혀용되어져 있다. 여러분이 오늘 받기 원한다면, 구원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된다.
- ◀ 예수님께서 겪은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는 배타적이 아니라 포용적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

=====

빅토 E. 프랭클, *의미를 위한 인간의 추구*. 증보판 (뉴욕: 워싱턴 광장 출판사, 1984), 101.

제 2 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

핵심본문: 누가복음5:1-11, 27-28

배경: 누가복음5:1-28

♠ 주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라고 부르신다.

♠ 탐구질문

예수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 학습목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텍사스의 우선 순위

- ◆ 텍사스와 국내 그리고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의 필요를 돌본다
- ◆ 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본문개요>

예수님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을 불러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데 동참시키셨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나 기질을 가진 사람일 필요는 없었다. 그들은 단지 예수께 순종하며 제자로 따라갈 필요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원래 되어야 할 모습으로 만드셨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분명한 부르심은 “나를 따라 오너라”이다. 그것은 마치 예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보통 사람 12명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이 세상을 뒤집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한 젊은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존 D. 로커펠러를 만나러 가야했다고 했다. 로커펠러가 그 청년에게 리더냐고 물었다. 그 청년이 빨리 대답하길, 그는 리더는 아니지만 좋은 제자였음엔 틀림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한가지 분명한 부르심은 “나를 따라오너라”는 부르심이다.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두 가지 체험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오늘 과에서 우리는 예수님 사역에서의 한 전환점을 직면하게 된다. 지난 과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 배웠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민족을 위한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고 그를 회당에서 끌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위협했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얼마간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자 사역을 하기 위해 바깥으로 나가셨다. 그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사실 예수께서는 회당으로 다시 돌아오셨다. 그 동안 예수님은 노상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호숫가에서 사역을 하셨다. 오늘 과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마가복음 1:16-20에 의해 앤드류도 포함)과 세리장인 레위(혹은 마태라 불림)를 부르시는 일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따라 오라고 부르신다는 것에 대해 깨닫게 된다.

1)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을 부르셨다. 갈릴리 호수는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즉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이다. 그 호수는 13마일 길이와 8마일 넓이와 680피터 깊이의 호수이다. 기온은 보통 열대성이다. 지금은 거의 사막이지만 예수님 당시 호수 주위로 아홉 개의 도시가 둘러싸여 있었고 각 도시마다 만 오천명이 활씩 넘었다.

예수께서 호숫가를 거닐 때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물을 셋고 있는 어부들을 보았다. 어부들이 일하는 보통 아침이었다. 고기가 가장 잘 잡힐 때는 밤이고 깊은 물에서이다. 밤새껏 수고하고 일을 마친 어부들은 그물을 셋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요구하셨다. 그리고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말씀 하셨다. 물소리는 잔잔하였기에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 이라기 보다는 예수께서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호수 깊은 곳으로 가져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경험 많은 어부였기에 그것이 아무런 소용

도 없는 일임을 알았다. 어부들은 밤새껏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른 말없이 예수께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예수님의 목소리에 어떤 권위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 리이다”라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5:5).

그들이 그물을 내렸을 때, 너무 많은 고기를 잡았기에 그물은 글자그대로 찢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한 기적이었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5:8)라고 말했다. 이 말을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다라고 해석해선 안된다. 반면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만 하는 그 두려움을 베드로는 느꼈다는 의미이다.

예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쥐하리라”(5:10). 확실치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처음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배를 육지에 가져왔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들은 모든 것, 즉 배, 그물 그리고 돈벌이 수단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다음 장에서 예수께서는 세관에 있는 레위(마태)라고 하는 세리장을 만나 그에게도 “나를 쫓으라”(5:10)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나 앤드류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레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쫓았다”(5:28).

이러한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단지 레위와 같은 사람들과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장 가까운 제자가 되게 하셨다. 세리는 예수님 당시 가장 멸시 당하는 자중의 하나였다. 그들은 도둑이나 강도, 매춘부 등과 같은 계급으로 여겨졌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점령당한 지역이었다. 로마에 의해 정복당하고 있었다. 세리는 로마 정부 밑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배반자나 반역자로 취급당했다.

세금제도 자체를 남용하였다. 로마정부는 세금징수를 위해 청부인을 사용하였다. 로마는 관할구역의 어떤 인물에게 세금을 부과해 그곳에서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팔았다. 세리는 연말에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할 책임이 있는 한 그는 사람들로부터 뽑아 낼 수 있는 것이면 어떤 다른 것이라도 계속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었다. 또한 사람에게 얼마를 징수했는지 발표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내야하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막대한 세금을 내라고 강요를 받아도 그들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세리는 너무나 경멸 당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었다.

레위는 그러한 자였다. 레위가 예수께서 구세주임을 깨달았을 때, 로마를 버리고 나쁜 방법이지만 돈 잘 버는 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2) 예수께서는 “바깥으로 나가셨던 분”이셨다.

“바깥으로 나간 사람”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라. 그 본래의 의미는 열려진 공간 속에서 “바깥”이 된다. 1세기 사람들의 생활은 거의 다 바깥에서 이루어졌다. 집은 조그마하고, 에어컨은 없었고, 가구들도 거의 없었다. 조그마한 기름 램프의 빛이 고작이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거의 잠자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을 바깥에서 행했다. 그러한 상황은 오늘날 제 3세계의 생활과 거의 흡사하다.

만약 예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다면 틀림없이 바깥으로 나가야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바깥 사람들을 찾은 분이었다. 예수께서는 실제로 처음부터 바깥에 계신 분이었다. 예수님은 여관 안에는 방이 없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마굿간인 바깥에서 태어나셨다.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바깥인 요단강 가에서 침례를 베풀었다.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천둥 같은 소리가 나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3:22)고 했을 때에도 바깥에 계셨다.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말씀인 산상보훈을 증거 했을 때도 바깥이었다. 한 여인이 무리들 사이로 기어와 병을 고침 받고자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을 때도 예수는 바깥에 계셨다. 예수께서 두 마리의 물고기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였을 때에도 바깥에 계셨다. 예수가 소경 바디매오의 눈을 뜨게 해주었을 때에도 바깥에 계셨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바깥에 계셨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실 때에도 바깥에 계셨다. 예수께서 10명의 문동병자를 고쳤을 때에도 바깥에 계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위대한 희생을 하셨을 때에도 바깥에 계셨다. 또한 3일 후 이른 아침 사람들이 그를 보러 무덤 안에 갔을 때 천사가 말하길,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24:6) 그는 “바깥”에 계셨다.

아마 예수께서 많은 시간을 바깥에서 보내셨음을 생각해보라.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바깥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바깥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결코 레위를 구원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레위는 회당에서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바깥에 있다는 이 개념을 더 생각해보라.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상징적으로나마 혹 글자 그대로 바깥으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텍사스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텍사스 포트 아서의 프락틀 스트리트 침례교회라는 큰 교회는 많은 베트남사람들에 의해 팔려서 그만 절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모든 의미에서 바깥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바깥사람들로 취급당하거나 혹은 그들 자신이 바깥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 그들은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찾을 때만 만날 수 있다. 예수님처럼 만약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하려면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한다.

3)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어부와 세리를 부르심은 우리들에게 예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만 오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만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아주 뛰어난 재능이나 은사를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께서 호수에서, 세관에서 부르신 사람들은 그들 주위의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이었으나 그들은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이 있었다.

주님은 단지 능력만을 보시지 않고 가망성과 신뢰성을 보신다. 우리는 기억하기로 교회는 대부분 매일 교회에 있는 무명의 목사와 평신도들에 의해 그리고 은혜와 깨달음으로 천천히 성도가 되어 가는 보통 죄인들에 의해 키져나간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낚으라고 부르신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르신다. “나를 따라 오너라”는 그 부르심은 이해하기 간단하고 쉽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택함으로 오는 위험성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틀림없이 충성을 요구함에 틀림없다.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그의 사명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삶의 주인이며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의 진정한 제자들이다.

산다는 것과 단지 존재한다는 것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만이 그 차이점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주님과 그의 왕국을 위해 헌신할 때만이 우리는 살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라고 부르신다. 사람들은 다른 것을 위해선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린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인가?

사람들은 의학기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 텍사스 휴스頓의 마이클 드베이키 박사는 심장혈관 수술의 선구자이고 여전히 최초의 세계 심장수술 의과의사 중에 한 사람이다. 인간 심장에 대한 오래된 신비를 풀려는 강한 욕망으로 90살의 나이에도 계속 전임으로 일했다. 드베이키 박사는 루이지애나 레이크 찰스에서 자랐다. 유망한 약과의사의 아들인 그는 튜울렌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전집을 읽었다. 그는 대학과 의과대학을 동시에 다녔고 학사과정이 끝나갈 즈음엔 2년간의 의학공부를 모두 마쳤다. 드베이키 박사는 골프치기, 사냥하기, 그리고 고기 잡는 것등과 같은 욕망을 진짜 열망인 약품 만드는 것으로 인해 버렸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예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다.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는 바이올린 연주가는 어떻게 그렇게 홀륭하게 되었는가 질문 받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계획적으로 포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표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들은 모두 버리려고 신중히 계획했다.

사람은 문학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다. 나다나엘 호손은 **주홍글씨**를 가지고 6년 동안이나 씨름했다. 테니슨은 그의 시의 일부를 50번이나 수정했다. 에드워드 깁슨은 **로마제국의 추락과 멸망**을 쓰기 위해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만약 사람들이 이러한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을 낚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 예수께서 시몬과 다른 어부들에

게 말씀하셨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5:10). 그 말씀으로 그들은 삶 속에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고, 새로운 존재의 이유를 품게 되었다. 최고, 최상의 가치가 있는 임무를 가졌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기쁨으로 모든 자신의 돈벌이 수단을 버리고, 레위는 기쁨으로 이익이 많이 남는 세금 거두는 일을 그만 두었다. 그들 모두 예수를 순종함으로 따랐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은 고기잡고 세금을 거두는 옛 습관을 깨뜨려버리고 사람들을 낚기 시작하는 것을 포함한다.

레위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 위대한 발견을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집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였다. 레위가 따돌림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손님들도 따돌림을 받게 됨이 틀림없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 거만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예수님은 레위 및 그의 친구들과 어울렸다.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예수님을 격렬히 비난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눈감아 준 것도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죄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사람들과 어울려야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하는 예수를 본 바리새인들은 분개로 가득 찼다. 그들은 왜 예수께서 그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는지를 알고 싶어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5:31-32).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얼마 뒤, 교회는 일주간동안 텍사스 침례회 초대 전도부 부장이었던 C.E. 매튜의 책을 공부 한 적이 있었다. 그 책 제목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었다. 그 책은 영혼을 구하는 것에 대한 공부였다.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 일찍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 하는 것이 목사 혼자의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나의 임무이기도 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이해했었고 분명히 성경 저자들은 새신자가 전도하도록 강요해야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전도는 그냥 이루어졌다. 새로 믿게 되고 제자가 되는 자연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또한 있어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만약 단순히 그들에게 전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질 수 있다. 사실 미국 사람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만약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들이 좋게 느끼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초대한다면 그들은 교회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사역초기부터 사람들을 부르시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만약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 좀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질문

1.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실 때 여러분은 확신에 가득차 본적이 있는가?
2. 여러분의 경험에 비춰볼 때, 여러분이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경우에 예수께서 개입함으로 여러분을 놀라게 했던 적이 있었는가?
3.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였는가?
4. 언제 어디서 여러분은 처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들었는가?
5.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교회 전도대상자로 생각되는가?
6.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 전도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7.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지상명령을 수행하겠는가?(마태복음 28:18-20)

<보충설명>

■ 전도

많은 전도 방법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야 한다. 그 방법들은:

대중전도: 침례요한과 시몬 베드로가 오순절날 사용한 방법이다. 빌리 그래함도 오늘날 사용한다.

그룹전도: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셨고(마태복음 10:1-42), 나중엔 70인을 보내셨다.(누가복음 10:1-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디로 가며 무엇을 가지며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그리고 축호전도를 할 때의 거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말하였다.

문서전도: 요한이 복음서를 쓴 목적은 사람들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20:31)

개인전도: 이 방법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도분야에서 공부한 사람이면 모두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방법이라는데 동의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의 전도를 받아 거듭나게 되었다. 개인 관계는 설교나 교회 예배나 그리고 전도행 사보다 두배 가까이 구원자를 만들어 낸다. 만약 여러분이 얼굴을 맞대고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면 그들은 종종 “예”라고 말할 것이다. 개인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 들의 해야 할 일이며 기쁨이 된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보시고”

누가복음 5:27에 있는 “보시고”란 단어의 의미는 “분명한 기쁜 마음으로 본다”는 뜻이다. 예수께서 레위를 보셨을 때, 그의 죄 이상의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레위의 가능성을 보셨다. 그때 레위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짜냄으로 그의 삶을 손해보고 있는 멀시 당한 사람이었다. 예수께선 단지 그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만 보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가 무엇이 될 것인가도 보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그 자리와 세금에 관한 종이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의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 예수를 쫓게 하신다.

■ 바깥사람들을 텍사스에서 환영하기

대통령이었던 고 린던 존슨의 목장 집의 흙 터는 매트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곳에 환영한다.” 그것은 언제나 텍사스의 정신이었다. 바깥사람들은 충심으로 환영되어 왔다. 만약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텍사스 독립전쟁의 영웅이자 텍사스 초대 대통령이었던 샘 휴스톤 장군이 설자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테네시주 출신이었다. 텍사스에서의 첫 침례교 선교사였던 제임스 허킨스가 설 자리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뉴햄프셔주 출신이었다. 또한 베일리 대학을 창설한 월리암 트라이온이 설 자리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뉴욕주 출신이었다. 또한 텍사스 땅에서 처음으로 침례교에서 설교를 하고 제일침례교회를 세운 Z.N.모렐가 설 자리가 없다. 그는 테네시주 출신이었다. 웨이코의 제일침례교회 목사였고 베일리 성경 부서를 시작했고 싸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B.H. 캐롤이 설 자리도 없다. 그는 미시시피주 출신이었다. 달拉斯의 제일침례교회의 유명한 목사이고 일반적으로 침례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의 한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조지 W. 트루엣트이 설 자리도 없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이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바깥사람들을 환영한다. 그 환영 매트를 각 교회에 부치도록 하자.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곳에 환영한다.”

<목상>

◀ 우리가 만약 불신자들을 전도하려면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 주님은 단지 능력만을 보시지 않고 가망성과 신뢰성을 보신다.

◀ 사람들은 다른 것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린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인가?

제 3 과

용서받은 사람들로서의 삶

핵심본문: 누가복음 7:36-50

배경: 누가복음 7:36-50

♠ 주제

죄 용서받음의 위대함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된다.

♠ 탐구질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죄용서함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 학습목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나의 감사의 정도를 평가한다.

텍사스의 우선 순위

- ◆ 텍사스와 국내 그리고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의 필요를 돌본다
- ◆ 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 ◆ 지금 있는 교회들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모임을 시작하라

<본문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용서 하심을 경험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된다. 또한 죄용서 함께 대한 의미가 크면 클수록 그들의 사랑의 헌신은 더 크게 되돌아온다. 그들의 헌신은 자연스럽고 희생적이며 그리고 적극적일 것이다.

샘 휴스톤 장군은 진짜 미국의 거물이자 텍사스의 영웅이었다. 휴스톤은 테니시주에서 성장했다. 십대 때 그는 체로키 인디언들과 살기 위해 집을 뛰쳐나왔다. 나중에 그는 군대에 입대했고 1812년 앤드류 잭슨 산하에서 전쟁을 치렀다. 잭슨 산하에서 복무할 때 휴스톤은 알라바마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 휴스톤이 35살이 되던 때 테니시주 주지사가 되었다. 그러나 첫 번째 결혼이 3개월만에 파경을 맞고 그의 정치적 경력도 깨어지고 말았다.

휴스톤은 체로키로 돌아와 다른 인디언 부인을 얻었다. 체로키 사람들과 있는 동안 그는 술버릇이 생겼고 인디언들은 6.6피트된 휴스톤의 이름을 “큰 술주정뱅이”라고 불렀다.

1832년에 휴스톤은 텍사스로 와 곧 정치 양조법 개혁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싸움은 멕시코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멕시코인들은 그들 스스로 왕실 멕시칸 시민으로 자부하였다. 그것은 의회에 의해 인정되었던 모든 멕시칸의 권리를 빼앗아간 최고권력자 산타 애나에 대한 싸움이었다.

역사에서 휴스톤의 자리는 1836년 샌 재신토에서 보호되었다. 하층민보다 수가 많았던 텍사스 군대는 간단히 산타 애나의 군대에게 승리하였다. 그것은 텍사스를 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사적인 전쟁이었다. 그 군대의 장군 휴스톤은 텍사스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10년 후, 텍사스는 미국의 일부분이 되었다. 휴스톤은 텍사스의 초대 미국 상원의원이 되었다. 그는 13년동안 그 일을 했다. 그리고 그는 1859년에 주지사로 선출되었다. 그는 남부연합에 충성을 맹세하는 일을 거절하여 15개월 후 면직되었다.

1839년 5월 일찍, 샘 휴스톤은 마가렛 모페데 리이를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다. 알라바마 주의 모빌에서 그녀 동생이 개최한 정원파티에서 딸기를 손님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휴스톤이 마가렛을 나중에 그해 여름에 보았을 때 청혼을 하였다. 그녀는 받아들였다. 그들이 1840년 5월 9일에 결혼할 때, 휴스톤은 21살의 마가렛보다 26살이 많았다. 침례교 목사 딸인 마가렛은 신앙 있는 침례교인이었다.

마가렛은 휴스톤의 술버릇, 욕하는 것, 싸우고, 여자를 좋아하는 버릇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즉시 그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실천에 착수했다. 첫째, 휴스톤은 바로 다른 여인과 함께 지내거나 혹은 여인을 좋아하는 버릇을 고쳤다. 그는 진짜로 마가렛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가렛은 그를 조심스럽게 도와 그의 폭주하는 버릇을 고치게 했다. 14년동안이나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드디어 남편이 침례 받게 되었다. 뛰어난 휴스톤의 전기인 큰 까마귀에서 말키스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샘 휴스톤은 인디펜던스에 있는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교인이 될 것을 원했다. 기록에 보면 그 일은 국가적인 일이었다. 1854년 11월 19일에 그 개심자는 차가운 로키 산맥의 물에서 루퍼스 C. 베레손목사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

1854년 10월 19일 휴스톤은 인디펜던스 침례교회에 다녔고 목사 베레손에게 말했다. “오늘 나는 나를 주님께 드리겠소.” 휴스톤의 침례 받는다는 광고는 그를 위해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샘 휴스톤의 생애에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던 휴스톤은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을 드렸다. 그 결과로 샘 휴스톤 장군은 그의 교회에서 목사 사례비의 절반을 책임졌고 베일러 대학의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업료를 대신 납부해주었다.

그러한 베풋이나 섬김은 늘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의 표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야 한다. 휴스톤의 예는 모든 텍사스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모든 믿는 자들이 죄용서함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함을 도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를 더 많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함으로 섬겨야 한다. 이것이 오늘 3과의 주제이다.

1) 왜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냉담하거나 엄격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하셨던 사교적이고 재미있고 인간적이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다. 그 결과로 예수께선 모든 축제날이나 저녁식사시간에 초대되곤 했다. 결혼식에도 참여했다(요한복음 2:1-2). 예수께선 종종 가까운 친구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식사를 하셨다.(누가복음 10:38-42) 예수께선 세리였던 레위가 베푼 만찬에 귀한 손님이었다(누가복음 5:29). 또한 여러 번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하셨다(7:36; 11:37; 14:1).

비록 예수께서 사회계급이 낮은 사람들과 주로 어울렸지만 어느 누구도 혹은 어떤 집도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 누가복음 7:36-50 말씀은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들과의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의 일이나 경우 하나를 다룬다.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었다. 예수께서는 즉시 그 초대를 받아들이셨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구별된 자들’이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왜 그런 사람이 예수를 그의 집으로 초대했는가? 아마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모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싫어하진 않았다. 혹은 아마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 특별히 예수님이 유대 법을 어기는지 시험해보려고 했을지 모른다. 그는 단순히 유명한 젊은 설교자를 만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그의 가르침과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배경은 시몬의 집 안뜰에서 이루어진다. 부유층 사람들의 집은 우뚝한 사각형의 훤히 뚫린 안뜰로 둘러싸여 있다. 종종 집안 뜰에는 정원과 호수가 있었다. 따뜻한 날씨로 이 안뜰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때 한 선생이 그 집에서 식사하고 있었고, 그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보배 같은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 모여들었다. 이러한 관습은 우리가 곧 알게 될 문제의 인물인 한 여인의 등장에 대해 설명해준다.

손님이 집에 들어갈 때 세 가지가 항상 행하여졌다. 첫째는, 집주인이 손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서 평안의 입맞춤을 한다. 그러한 존경의 표시는 결코 뛰어난 선생의 경우엔 빠지지 않았다. 둘째는, 도로는 면지투성이로 신발은 발을 가죽끈으로 묶은 발바닥이 고작이다. 항상 차가운 물을 손님 발에 부어 깨끗하게 씻기고 편안하게 해준다. 세 번째, 좋은 냄새가 나는 향을 태우거나 장미향이 들어있는 향유 한 방울을 손님의 머리 위에다 떨어뜨린다. 이러한 좋은 관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몬은 이러한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기 원하셨다면 완전히 무례한 자로 취급

당할 수 있는 그런 예절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방해하는 조그마한 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다.

그 시대 근동지방의 식사방법은 우리와는 전혀 달랐다. 참석자들은 테이블의 의자에 앉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테이블 주위의 소파에 기대고 왼쪽 팔꿈치에 받친다. 그러면 오른쪽 팔은 자유롭게 된다. 그들 발은 뒤쪽으로 뻗친다.

저녁 식사하는 손님들은 단순히 “죄인”(7:37)으로 낙인찍힌 한 여인의 등장으로 놀라게 된다. 그 말은 의식적인 불결이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여인은 아마 창녀였다.

그 여인은 많은 군중들의 가장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그녀의 곤경에서 건져줄 예수님이 손을 얼핏 보려고 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테이블에 기대어 있으면서 발은 뒤로 뻗쳐져 있었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께 다가가 그녀가 계획적으로 가져온 향유를 조심스럽게 그의 발에 적셨다. 그러나 그녀가 그 일을 행하기도 전에 벌써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울기 시작했다. 그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뚝 떨어졌다. 거의 동시에 허리를 굽혀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7:37-38)

평범치 않은 이러한 일은 주인인 시몬의 마음을 불편케 했다.(7:39)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그는 스스로 속삭인다. 만약 예수께서 선지자였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틀림없이 선지자는 죄인인 여인이 한 그런 행동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선지자는 지혜롭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례한 그 여인의 행동을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날 선생은 결코 대중장소에서 도와 달라고 조차 한마니 하지 않았다. 시몬은 결론 내리길 예수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몰랐거나 그녀에 대한 태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같이 탐탁지 않은 여인에게서 그러한 존경을 받는 것에 대해 시몬은 마음이 어지러웠다.

시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님이 그녀에 대해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시몬의 쓸데없는 생각을 아셨음을 말해준다. 시몬이 실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읽고 계셨다.

시몬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7:40) 그리고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 그것은 두사람의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준 주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로마 테나리온은 오늘날 한 보통 사람이 하루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은돈이다. 두 번째 빚진 사람은 단지 오십 테나리온을 졌다. 첫 번째 사람의 10분의 1이 되는 돈이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빚을 갚지 못해 주인은 둘 다 탕감해 주었다.(7:41-42)

그리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물으시되 이 둘 중에 누가 탕감해 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7:42) 시몬이 추측하여 더 많이 탕감 받은 자라고 말했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옳다고 말씀하셨다.(7:43)

500데나리온은 그 여인의 죄를 말하는 것이고, 50데나리온은 시몬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인이나 시몬 둘 다 빚에 대해 아무런 희망이 없었으나 시몬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의 죄는 그 여인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남에게 부채를 반환할 것에 대해 무정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은 둘 다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와 시몬은 무시한 반면에 그녀의 사랑의 큰 수고를 언급하는 것으로 적용시켰다(7:44-46). 예수께서는 계속 시몬에게 그녀는 큰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셨다(7:47).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다고 말함으로 이 사실을 알리셨다(7:48, 50).

이 이야기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두 가지를 대조한다. 시몬은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사랑이나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선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 여인은 필요를 느꼈기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 여인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한가지는 자족감이다. 이상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디모데전서 1:15)고 말할 수 있었다. 아마 가장 큰 죄는 어떤 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시몬은 즉시 그 여인을 분류하여 죄인으로 몰아붙였다. 그녀는 같은 류의 다른 사람들처럼 취급함으로 격하시켰다. 그러나 모든 점에서 그 여인은 시몬보다 월등함을 보여준다. 그날 예수님을 위해했던 그녀의 행동은 예수께서 그녀에게 보여줬던 사랑과 용납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에 의해 용납되고 용서함 받게 될 거라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있었다.

예수님의 용납의 기적은 분명하게 보여진다. 예수님의 용서함의 결과로 그 창녀는 자신의 하나님의 딸로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함으로 그녀는 주님을 섬기고자 원했다.

2) 섬기는 방법

이 여인의 겸손한 섬김의 행동에 대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세 가지 도전을 준다.

첫 번째, 그녀의 섬김은 자연스러웠다. 시몬 집에 예수께서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의를 시몬이 제공할 것을 예수님이 기대 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녀에게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은 완전히 자발적이었고 깊은 감사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음을 기억하라. 성경말씀은 분명하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에베소서 2:8-10). 선한 행위가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선한 행위는 구원의 결과이긴 하다(야고보서 2:17).

두 번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여인의 사랑스러운 수고는 희생적이었다. 설화석고(雪禍石膏) 상자는 순수한 반투명의 물질의 길다란 목의 휴대용 병으로 향수를 보관하는데 사용된다. 이 상자는 아름답고 비싼 돌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가격이 그녀에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를 용서해준 분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데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은 자비로웠고 고귀했고 그리고 헌신적이었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의 가격은 알지만 그 가치는 잘 모르는 것 같다. 다윗은 한때 아라우나라고 이름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사무엘하 24:18-25).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가서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만들려고 그의 타작마당 살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타작마당을 그냥 주었을 뿐 아니라 그 번제에 사용될 소들도 그냥 주었다. 그는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사무엘하 24:23)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윗은 주는 것을 그저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다시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께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사무엘하 24:24)라고 말했다.

수많은 사람들은 값이 싼 종교를 찾고 있다. 그들은 헐값에 팔아치우는 물건의 가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축복을 원한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값을 매기지 않는다. 그들은 섬김에 있어 희생적이다.

세 번째, 그 여인의 행동은 부끄러움이 없었다. 즉, 그녀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혼신을 보여주는데 있어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녀는 누가 보든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누가 보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감지하지 못한 것 같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은 이 여인과 같아야 한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비판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여인은 그녀의 섬김의 행동을 이렇게 변명했을 수도 있다. “주인은 주님에게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녀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섬겼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는 마치 이 여인과 같아야지 바리새인과 같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어떤 대가나 비판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상관없이 주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의 섬김은 비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깊은 동정과 감사함에서 나와야 한다.

질문

1. 누가는 예수님을 종종 파티나 저녁식사에 참석했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예로, 누가복음 5:27-32; 7:36-38; 10:38-42; 11:37-41)
2. 주님의 용서함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3. 바리새인에 의해 좋은 예가 된 바 대로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4.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주님을 위한 특별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특별나게 섬기고 있는 분들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그분들이 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지 아는가?
5. 예수님은 우리의 성격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아신다. 바리새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그 여인이 생각했던 방법을 대조해보라.
6. 예수님의 발을 씻고 습관대로 뺨에 입을 맞춰 예수를 맞이하고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분는 것들을 행하지 않은 바리새인에 대해 여러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7. 용서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증거를 보여주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보라.

〈보충설명〉

■ 샘 휴스톤의 거듭남

샘 휴스톤이 목사의 사례비의 절반을 책임지며 베일러 대학의 신학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관대하고도 섬김의 행위만이 그가 정말로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침례를 받고 얼마 뒤 그의 말에 오르려고 할 때 말은 발부리가 걸려 넘어졌다. 옛날 성품이 순간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그 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그 장군과 여행을 갔던 존 레이건에 의하면 휴스톤은 말에서 내려 길에 무릎을 꿇고 용서함을 구했다는 것이다. 휴스톤은 정말로 용서함을 받았고 거듭난 사람이었다.

■ 바리새인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종교지도자 집단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다. 둘 다 정치적인 사람이면서도 종교적이었다. 그 이름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다. 그것은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본질을 말한다. 거의 처음부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로 부닥쳤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와 의에 대한 매우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해 표현한 바에 의하면 그들을 위한 종교는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에다 그 율법을 적용해왔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적용은 거의 율법 자체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졌다. 대체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기를 거절하였다.

<적용>

- ◀ 우리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위대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같은 죄 용서함은 우리가 더욱 더 섬기기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한다.
- ◀ 예수님은 사람들을 차별대우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는다. 예수께서는 자유스럽게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과 같은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셨다. 우리는 우리의 선입관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 ◀ 하나님의 은혜와 죄 용서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죄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 ◀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서는 안된다.
- ◀ 다른 사람의 행동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목상>

- ◀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를 더 많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함으로 섬겨야 한다.
- ◀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한가지는 자족감이다.
- ◀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에서 나오는 것 이어야 한다.
- ◀ 수많은 사람들은 값싼 종교를 찾고 있다. 그들은 헐값에 팔아치우는 물건의 가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
- ◀ 우리는 어떤 대가없이 주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비판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 ◀ 우리의 섬김은 비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깊은 동정과 감사함에서 나와야 한다.

=====

1 말키스 제임스, 큰 까마귀:샘 휴스톤의 전기전(1929; 재판, 어스틴: 텍사스 주립대학 출판, 1994), 385

제 4 과

주님의 사역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임무

핵심본문: 누가복음 10:1-7

배경: 누가복음 10:1-24

♠ 주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 탐구질문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역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수행할 것인가?

♠ 학습목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그 사역을 확인한다.

텍사스의 우선 순위

- ◆ 텍사스와 국내 그리고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의 필요를 돌본다
- ◆ 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 ◆ 지금 있는 교회들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모임을 시작하라

<본문개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동시에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주님의 일은 결코 전문가들이나 선택된 몇 사람에게 맡겨지지 않았다. 모든 보통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 받았다. 이 과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 행하게 하신 사역에 대해 배울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제 1 차 세계대전 시 미국은 독일 잠수함과 격전 중이었다. 우리는 그 사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코메디 작가 빌 라저스는 한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그의 제안은 우리가 해안을 끊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압력이 가해져 잠수함이 위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마치 호수에 있는 오리와 같이 쏘아 갈기면 되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그 해안을 끊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빌의 대답은 그는 그냥 무엇을 해야함을 말했을 뿐이고 세부적인 것은 모두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지는 다 잘 알지만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너무 광범위하고 개론적인 것들이다. 예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예수께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사람들에게 말했을 뿐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70인 제자들을 두사람씩 예수께서 곧 말씀을 증거 하시게 될 그 도시로 보내신 이야기이다. 전에 예수께서는 같은 사명으로 12제자를 보내신 적이 있다(누가복음 9:1-10). 70인 제자를 보내신 것은 그의 말씀 사역을 빨리 확장하시기 위함이었다.

70인을 보내심은 그룹 전도의 한 예이다. 제2과에서 네 가지 종류의 전도방법을 신약성경에서 배울 수 있다고 했다. 하나는 대중전도이다. 침례요한이 많은 대중 앞에 한 설교말씀이나 유월절 날 베드로의 설교말씀은 이러한 전도방법의 예가 된다. 또 다른 것은 개인 전도이다. 앤드류가 형제 베드로에게 말하고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한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예이다. 세 번째로 문서전도는 요한이 말한 바대로 복음의 기록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20:31).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며 무엇을 가지고 가며 어떻게 행동하며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거절에 대해 대처할지를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난 뒤 두 사람씩 짹지어 보내셨다.

숫자 70인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징적인 숫자이다. 첫째로, 그것은 모세를 도와 광야에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임무를 위해 택한 장로들의 숫자이다(민수기 11:16-25). 둘째로 그것은 산헤드린, 즉 유대인들의 최고 공회의 숫자이다. 세 번째는 세계 모든 나라들의 숫자였다. 누가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 세계 모든 국가가 구세주를 알고 믿게 될 날을 꿈꾸고 있었을 것이다.

70명은 신명기 19장 15절의 습관처럼 두사람씩 짹지워져서 보내어졌다. 두사람의 증거는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보내다”라는 동사는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대표자 혹은 사자라는 것을 뜻한다. 그들의 임무는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감당할 사명을 미리 준비하는 것 중의 일부로 이야기 할 수 있다.

1) 임무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심

누가복음 10:2에서 예수께서 70인들의 임무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눈여겨보라. 그들을 준비시키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누가복음 10:2). 예수께서는 종종 추수의 비유를 사용하여서 믿는 자들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9:37-38; 요한복음 4:35) 추수해야한다는 사실과 추수를 얼마나 해야 하는 지는 문제가 안되었다. 한가지 문제는 바로 일꾼이었다. 그래서 70인은 주께서 일꾼을 보내어 줄 것을 기도해야 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2-11에 예수께선 그들에게 여행과 사역을 위한 자세한 가르침을 주셨다. 그들은 담대하게 가야했다. 그들의 보냄은 어린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았다(10:3). 예수께서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늘 거절당하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가야했다.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선 특별히 담대함이 필요했다.

4절 말씀은 그들이 믿음으로 갈 것을 말해 준다. 그들은 아무 것도 가지지 않고 여행을 해야 했다. 그들은 주머니나 다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 그들의 삶이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 복잡해져선 안되었다. 물질은 우리를 이 세상에 못박아버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다.

또한 그들은 급한 심정으로 가야했다. 그들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아야 했다”(10:4). 이 말은 그들이 불친절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팬한 인사로 인해 자체가 되거나 당황되지 말라는 뜻이다. 그들은 놀라운 일을 하는 동안 사소한 것들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시간을 보내지는 말아야 한다.

또한 그들은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같은 마음이 되어야 했다. 그들이 사용했던 인사는 고대 셈족 언어인 샬롬 혹은 평안으로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평안을 바라는 것이다. 예수께서 5절에서 사용하셨던 인사는 우리가 만약 메시야를 믿기만 하면 지금 당장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상징한다.

부가적으로 70인은 감사하는 마음과 용납의 마음으로 가야했다. 그들의 임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할 집을 구해야 했다(10:6-7을 보라). 만약 사람들이 그들을 자기들의 집에 유하게 하면 그들은 그 초대를 응할 것이고 그들에게 무엇이든 주면 먹을 것이었다. 그들은 사자들이지 거지는 아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 집 저 집 두루 찾아다니며 더 편한 숙소나 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그들의 임무이지 그들의 호의의 질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는 것에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되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가진 자들은 그 사람들로부터 호의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린도전서 9:4-11). 일꾼은 임금을 받을 만한 가치는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일꾼은 호화로운 것들을 피해야 한다. 또한 분명히 그들은 유대인의 음식 규례에 의해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을 줄이게 되었다. 그들은 무엇이든 그들 앞에 차려져 있는 것을 먹어야 했다.

더욱이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야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누가복음 10:9)라고 선포해야 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속에 있다. 이 사람들은 권위 있는 대사들이고 사람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70인 전도자들은 구원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했다. 만약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 버리고” 이동했다(10:11). 아마 70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예수

께서 그들의 메시지가 어떤 동네에서 거절당할 때를 준비시키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임무를 가진 자들이었기에 만약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거절한다면 예수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 도시, 고라신, 벳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한 심판의 화를 선포하셨다 (10:13-15을 보라). 처음 그가 고라신과 벳새다에 심판을 선포하셨다. 예수께선 소돔과 두로 그리고 시돈 땅이 심판 때에 그 도시들보다 견디기 쉽다고 말씀하셨다.

소돔은 가장 사악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된 그 도시의 운명은 유대인에 의해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었다(창세기 19:1-29을 참조).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항구인 이방인 도시들로 우상숭배와 사악의 중심지로 여겨졌다. 만약 이러한 도시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께서 세 도시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앓아 회개하였을 것이다(누가복음 10:12-15). 베옷은 염소 혹은 낙타 털로 만들어 아주 거칠어 죄에 대해 비탄의 상징으로 입었다.

예수께서 가장 신실한 제자들의 고향이자 갈리리 호수 사역의 중심지이며 많은 엄청난 일들을 베푸셨던 가버나움에 대해 마지막 화를 선포하셨다(4:31,28 참조). 예수께서 말씀하신 엄청난 일에는 병든 자를 고치신 일, 문동병자를 깨끗케 하신 일,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일을 포함한다. 그의 엄청난 행동은 가버나움에선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대신 오만한 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독선적으로 거절했고 겸손히 회개하기를 거부하였다.

16절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사이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그들을 거절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우리가 심판 중에 있는 것이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를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견디는 정도는 말씀을 들을 기회와 실천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같은 원리는 국가나 주(州)안에 있는 현대 도시들에도 제외되지 않는다.

2) 얇은 책임감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엄청난 책임감을 가진 자들이다. 그들은 어떤 알 기회를 가졌는가에 따라 심판되어 질 것이다. 우리는 어른한테서는 비난될 것들이 어린아이들에게는 허용이 되곤 한다. 또한 우리는 보통 시민한테서는 벌을 내릴 만한 것들이 야만인들에게는 허용이 된다. 책임감은 권리의 또 다른 한쪽 면이다.

이러한 진리는 몇 년전 내가 멕시코로 내 교회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선교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떠났던 때에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선교사 로버트 스미스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만오천명 되는 도시에 대해 말해 주었다. 그곳은 몇 년동안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마약 매매하는 중심지였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로버트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보게 될 가난과 영적 어두움에 대해 준비하게 했다. 우리가 멕시코를 넘게 되는 국제다리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그는 차를 고속도로 가에다가 세우고선 말했다. “여러분에게 주의를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가난과 어두움을 보면서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해야한다는 책임감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 가시겠습니까?”

그의 말은 나에게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안다고 하는 것은 항상 동시에 책임감을 동반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다른 경우에서 말씀하실 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좋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12:48).

70인이 선교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말하였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10:17). 이 제자들은 더 이상 귀신의 힘에 대해 계속되는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었다. 귀신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에게 항복하였다.

동시에 주님은 그들에게 주의하시며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하였다는 사실을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하라고 하셨다(10:20). 무슨 의미인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경고하시사 그들의 성공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라는 것이다. 성공은 잠시 있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고 영구적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들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서 영원한 기쁨을 찾는다.

3) 우리들에게 도전

이 성경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

첫째로,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일군이다. 추수할 곡식은 있었는데 일군의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 추수의 경우 전도하는 일은 모든 성도들이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문 목회자들에게 맡겨지곤 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너무 작은 일이 너무 많거나 정말로 중요한 일은 소홀히 한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 전하는 일이다. 만약 그 일이 효과적으로 되어지려고 하면 그 일은 평신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만약 우리가 텍사스주의 긴급한 필요를 알았다면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그려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10:2). 예수님의 경우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로 행해졌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조직을 하라고 하시거나 전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하라고 권하시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일군들을 추수할 곳에 보내달라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라고 권면하셨다.

세 번째,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있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한 설교가의 설교를 듣는 청중의 한사람으로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결코 예배당에 앉아 설교를 듣는 사람의 무리가 될 수 없다. 교회는 추수할 곳에 예약된 일군이 모인 곳이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추수할 곳은 익었는데 일군이 적다고 말씀하셨을 바로 그때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제사를 드리며 성전 일을 계속해 나가는 동안 세상은 죽어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 가시지 않고 사람들이 그에게 오기를 기다리셨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라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조직하고, 임무를 부여하셨다.

나는 한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했었다. 집사장이 나에게 말하길, “목사님, 나는 친구 가운데 불신자가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러면 교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군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교회에서 보낼 수 없다. 세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불신자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친분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많은 교회들을 보면 나는 기름 원천지를 소유한 한 이웃에 대해 기억하게 한다. 그는 기름 원천지를 발견하여 매일 매일 끊임없이 뽑아냈다. 그러나 그는 팔지를 않았다. 어느 날 그 이웃남자에게 왜 팔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남자가 말하길, “우리가 뽑은 기름은 단지 이 기계를 가동시키는 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종종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이 단지 조직이 잘 돌아가게 하는데만 사용되어진다.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우리에게 추수할 곳인 세상에 나갈 힘이나 마음은 남아있지 않는다.

추수할 곡식은 익었으나 일군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하지 못할 밤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요한복음 9:4). 우리는 밤이 오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약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아는 확실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떤 이는 믿고 구원에 이를 것이며 천국의 인구는 증가될 것이다. 결국 그것이 교회의 위대한 사명이다.

질문

1. 어떻게 우리 주위의 추수할 곳에 곡식이 익었음을 알 수 있는가?
2. 핵심적인 사명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3.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어려운 점이나 거절이나 반발은 무엇인가?
4.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가?
5. 여러분이 모임을 책임지도록 주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6. 오늘날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필요한 특징들은 무엇인가?
7. 만약 여러분이 아무런 불신자도 모른다면 어디에서 여러분은 추수를 시작할 수 있겠는가?
8. 텍사스를 전도하기 위해 일찍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말을 타고, 물이 불은 강을 헤엄쳤고, 텍사스의 강한 북풍에 용감히 맞서고 사람을 만나는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전했고, 어떤 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인도된 자들을 침례교 교회에 가입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일찍 죽기도 했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빛을 갚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충설명>

■ 우리의 책임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느끼게 한다. 심판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어떤 사실들을 고려해볼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가슴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로마서 2:15-16).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유가 없다(1:20; 2:1).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만약 주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다면 우리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만약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조금의 호위는 받게 될 것이다(누가복음 12:48).

⇒우리는 우리의 기회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 기회가 있고도 일부러 거절한 사람보다 심판 날에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마태복음 11:21-22; 누가복음 10:14; 2 Peter 2:2).

⇒우리는 우리의 말로 인해 심판 받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무익한 말로 인해 심문을 받을 것이다(마태복음 12:36-37).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 한 것으로 심판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 사용하는 똑같은 기준과 표준이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사용될 것이다(마태복음 7:1-2).

⇒우리는 선하고 자비로운 행동에 의해 심판 받게 될 것이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자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상을 앓지 않게 될 것이다(마태복음 10:42; 25:31-46; 히브리서 6:10).

요약하면,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모든 삶과 관련이 있다. 심판에 많은 요소들이 고려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며 영원한 상이나 벌의 등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보내어 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내다”라는 말은 아주 강한 표현이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그려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누가복음 10:2). 문자적인 의미는 세계 내던지다, 내던지다, 힘차게 던지다 이다. 성경 다른 곳에는 예수께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였다(마가복음 7:26).

남자, 여자, 소년, 소녀의 가슴속에 얹누를 수 없는 강한 충동으로 예수를 증거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권하고 있다.

<묵상>

- ◀ 물질은 우리를 이 세상에 못박아버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다.
- ◀ “여러분에게 주의를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가난과 어두움을 보면서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해야한다는 책임감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 가시겠습니까?”
- ◀ 성공은 잠시 있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고 영구적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들이 어떤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서 영원한 기쁨을 찾는다.
- ◀ 추수의 경우 전도하는 일은 모든 성도들이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문 목회자들에게 맡겨지곤 했다.
- ◀ 예수님의 경우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로 행해졌다.
- ◀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있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 ◀ 우리는 반드시 불신자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친분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제 2 단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인격체이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의 행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러한 교훈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어떤 이유에서건 사랑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예수님의 사역현장을 통하여 현실감 있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5과 에서는 상처 입은 나그네를 도와주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규례나 전통보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먼저라는 진리를 제6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7 과는 예수님의 부활과 특별히 이 부활하신 예수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¹⁾ 제 8 과는 우리의 교제가운데 진정으로 받아들인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축하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 9 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섯과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무시하거나 소홀히 대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행동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텍사스의 침례교인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참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도록 그리고 필요가 발견되는 곳에서 그 필요들을 채우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가 설정한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신앙목표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교회 적인 차원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도전입니다.

1) 제 7 과가 부활주일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단원의 마지막에서 다루어도 될 것입니다.

제 5 과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핵심본문: 누가복음 10:25-37

배 경: 누가복음 10:25-37

♠주 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탐구질문

사랑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학습목표

예수님이하신대로 사랑을 정의하고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결정한다.

텍사스의 우선 순위

- ◆ 텍사스, 이 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한다.
- ◆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본문개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빌 그라벨은 전도자이다. 그는 내가 가르치던 침례교 대학의 학생이었다. 그가 최근에 학교에 와서 예배시간에 말씀을 전한 일이 있었다. 그의 설교는 누가복음 10:25-37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근거로 한 것이었는데, 그 제목은 “당신의 나귀에서 내려오라”이었다. 그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다.

길옆에 쓰러져 있는 이 상처입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세 사람이 지나쳐 잤다. 그 중 한 사람만이 도와주기 위해 나귀에서 내려왔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나귀에서 내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1) 사람사랑은 하나님사랑에서부터(10:25-28)

예수님의 사역은 열렬한 추종자들뿐 아니라 훼방꾼들의 주의도 끌었다. 누가복음 10:25-37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6개월 전의 일이다. 군중들은 이전보다 더욱 늘어났고 아주 열심이었다. 예수님의 비판들은 훼방자들에게 고소할 거리를 더해 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율법의 이해와 적용에 대한 그의 태도는 늘 감시의 대상이었다.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자신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이를 완성하려 왔음을 분명히 하셨다(마태복음 5:17).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평판을 무너뜨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누가복음 10:25에 나오는 “율법사(expert in Law, NIV)”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무리들의 대표였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들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예수님을 훼방하고 그에게 도전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그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빠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몰아세우기 위함이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그가 물었다(10:25). 그 질문은 율법사나 율법선생들이 모인 곳에서나 토론되어질 법한 주제였다. 그 질문은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다. 어떻게 사람이 이생에서 또 저생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했던 질문과 다를 바 없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사도행전 16:30).”

그 질문을 한 사람은 자기가 한 질문에 걸맞은 자격을 갖춘 자였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떻게 율법이 해석되어져 왔고 소위 말하는 전통이라는 범위까지 확대되어져 왔는지 알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님이 정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분명히 그는 예수님의 어떤 잘못된 것을 말하거나 자기가 도달한 결론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지게 하고 입다물게 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늘 그렇듯이 예수님은 기상천외한 질문으로 그에게 응답하셨다. 그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대꾸하셨다(10:26). 이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은 아마 그 율법사의 이마에 달린 경문을 향하여 몸짓을 하셨을 것이다. 이 경문은 율법의 핵심내용을 담은 작은 원통형 상자인데, 이를 지닌 사람의 경건함과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 몸에 달고 다녔다. 이 상자 안에는 이스

라엘 백성의 믿음의 신조가 되는 쉐마라 불리는 신명기 6:4-5의 내용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담긴 레위기 19:18 말씀이 기록된 아주 작은 문구가 들어있다. 종교적인 믿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신명기 6:6-8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 율법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누가복음 10:27).” 예수님이 주저 없이 대답하셨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10:28).” 예수님이 너무 쉽게 자신의 말에 찬성하자 그 율법사가 적잖이 실망했다.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으려고 그가 두 번째 질문을 하였다.

두 번째 질문을 언급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에 온전히 수긍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 기인한 좀 더 전통적인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 혹은 복음전도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것, 또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 그게 이해가 될법도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함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기 전의 일이었음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사의 질문에 아주 적절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자격도 없이 이 문제를 거론한다고 확신하셨다.

“율법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위대한가?”(마태복음 22:36)에 대한 대답을 줄 때(마.22:35-40; 막 12:8-31), 예수님이 율법사가 한 것과 동일한 대답을 주셨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은 진심으로, 너의 온 몸을 다해 그를 사랑하란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에게 자신 전체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나님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은 사실 두 부분으로 된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 가르치셨다.

2) 사람을 사랑함은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는 것이다(10:29-33)

누가복음 10:29은 이 율법사가 분명히 어떤 다른 답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암시해 준다. 예수님께서 이제 형세를 뒤집으셨다. 이 시점에서 그가 예수님의 지혜 있음을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서는 게 훨씬 좋을뻔 하였으나, 그는 자신을 의롭게 보이길 원했다. 차라리 가만있어서 체면을 좀 지키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그는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라고 물었던 것이다(10:29).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토론할 성질의 것이 아니건만, 얼굴이 웃으락붉으락하게 변한 율법사는 계명의 두 번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 이 부분을 들고 나왔다.

그 당시에는 누가 이웃인가에 대한 토론이 지속되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율법사의 질문이 그리 놀라운 것은 안된다. 서기관들도 추론하듯이 이웃이라는 대상이 원수지간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그들은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고 결론 내려 왔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팝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도전하셨다(마태복음 5:43-45). 일단 이웃에 대한 정의를 좁게 내려버리면, 세리들,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다른 천박한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이라는 범주에서 제외하기가 쉬워진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

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피상적인 대답을 주기 싫어하셨다. 그는 “누구든지 또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하셨을 수도 있었다. 대신에 그는 결코 잊지 못 할 아주 생생하고도 귀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눅 10:30). 위험한 도처에 깔려 있음은 자명한 일이었다. 동굴들도 많고, 바위투성이인 구불구불한 길은 사람들이 강도로 변하기에 안성맞춤인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해수면보다 2300피트 위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해수면보다 1300피트나 아래에 위치한 여리고까지 나있는 길의 경사가 그리 완만하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이 길이 얼마나 구불구불한지 짐작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였지만, 그래도 혼자서 여행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위험을 자초한 것이었다.

강도들이 이 남자를 불러 세웠다. 그들은 그가 입은 옷가지조차 벗겨버릴 정도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깡그리 빼앗았다. 그들은 잔인하게 때렸고, 상처투성이로 피범벅이가 된 채 거의 죽은 그를 버리고 가버렸다. 그의 벗겨진 몸은 태양 빛에 그을리고 바람에 쪄기었으며, 야생동물들과 새들의 먹이처럼 놓여져 있었다. 어떻게 그가 이 지경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다. 아마도 이 아론의 후예는 성전에서 종교적인 관례들을 치르고 난 후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이었을 것이다. 짐작컨대, 그는 희생제사나 다른 성전관례들에 참여했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기한다면, 그는 성직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는 율법의 문제들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터였다. 그 제사장이 길가에 놓여진 잔인한 참상의 육체를 보았다. 그는 그를 못 본 채 하였다. 그는 다른 길을 택해서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기로 하였다.

다음에는 레위인이 왔다. 레위인들은 옛부터 내려오는 권위를 따라 종교적인 관례들에 헌신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제사장을 보조해 왔으며 성전을 유지하는 일상적인 일들을 수행하였다. 그도 제사장처럼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핵심사항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레위인 또한 죽어 가는 사람의 곤경을 무시한 채, 더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되느니 차라리 다른 길을 따라 지나쳐 버렸다.

왜 이들이 도와주기를 거부했는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난 이일에 관여되고 싶지 않아. 난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이 사람은 스스로 위험에 빠져 들어갔음을 깨닫게 될 거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만일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생각들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일한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그들은 그를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길가에서 죽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 길을 여행 하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외부인이고, 혼혈족인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이 비유의 영웅이었던 것이다. 그는 필요를 보았고 이에 응했다. 고통 당하는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무엇인가를 행하게 하였다. 그도 물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빴을 것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혹사당한 이 낯선 사람의 필요가 그의 우선 순위가 되었던 것이다.

3) 사람을 사랑함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행동을 요구한다(10:34-37)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10:33). 그 사마리아인은 곤경에 처한 여행자를 향한 감정을 느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굶어 죽어 가는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적인 반응이다. 이것은 누군가 일자리를 잃었다거나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 때 창자가 꼬이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와 같은 감정이다. 가족을 잃게 된 사람이 있을 때 그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러나 이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아주 안되었다고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 고통을 나누고, 목회적 돌봄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스카 톰슨2세는 **관계중심전도**라는 자신의 책에서 사랑을 정의하기를 사람의 필요들을 채우는 것이라 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영웅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불리워짐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아파하는 사람의 필요를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인은 나귀에서 내려 그 사람에게로 다가갔다. 그를 한번 만져보았다. 기초적인 치료약을 담고 있는 당시의 응급처치상자를 꺼냈다. 길가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 민간요법대로 기름과 포도주가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쓰여졌다. 그리고 나서 그를 나귀등에 올려놓았다. 이 사람을 떨어지지 않게 불들고 가장 가까운 여관을 향해 나귀 옆에서 걸어가는 사마리아인을 머리 속에 그려보아라. 그는 좀 더 여전이 좋은 그곳에서 심하게 상처 입은 이 사람을 계속 돌보아 주었다. 그는 밤새 그 사람 옆에서 있어주었고 다음날 떠나기 전에 여관비도 물어주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돌보아 줄 것이라 짐작하고 거기에서 도와주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주막주인에게 말하였다(10:35).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까지 다 하기 전에는 자신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예수님과 율법사간의 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온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셨다(10:36). 오로지 한 가지 답밖에 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율법사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비를 베풀자니이다”라고 온순히 대답했다(10:37).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했어야 할 것을 고의로 회피했을까? 예수님은 이 대화를 끝내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다(10:37).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 비유가 말해 주고 있는가? 그 이상이다. 한편으로는,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인상을 남겨준다. 또 한 측면에서 볼 때,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정의하는 문제보다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율법사나 우리를 향한 도전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이다. 이웃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4) 나귀에서 내려오시오!

37절에서의 강조는 “행함”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앞의 대화에서도 언급하였다(10:28).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4:15).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요일 3:10).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요일 3:24).

누가복음 10:37에 나오는 “행함”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적용될 수 있다. 행동함이 없는 사랑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4-16).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요일3:17).

우리 텍사스 침례교의 신앙목표들 중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 비유는 사랑으로 섬겨야 할 우리의 사역에 귀한 모델이 되어준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우리 사회 속에는 굶주리고, 상처입고, 집이 없어 떠도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비유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그 때 그 때 필요가 발견될 때마다 개인적으로 섬기는 행위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교회를 통해 협력하는 일도 바람직하다. 우리가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우리의 투표권을 이용하여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과 프로그램들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행해야 한다. 당장 당신의 나귀에서 내려오라.

질문

1. 다친 사람을 못본체 한 행동을 제사장과 레위인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었는가?
2. 무엇이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이 주지 않은 도움을 주게 하였는가?
3.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이 비유의 영웅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4.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신도 도와주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겠는가?
왜 그렇게 하겠는가? 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5. 당신의 성경공부반 혹은 교회에서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흡사한가?

<보충설명>

■ 사마리아인

신약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사이에 태어난 후손들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중부와 요르단 서부에 살았다. 사마리아로 알려진 지역은 북부 갈릴리와 남부 유다 사이에 위치해 있다. 기원전 722년, 앗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이들이 많은 수의 이방인 정복민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다. 남은 이스라엘인들이 자신들의 영토에 이주된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 되었던 것이다.

기원전 535년경, 남 유다의 이스라엘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사마리아의 도움을 거절하였다. 그 결과 이 둘 사이에는 아물지 않는 상처가 남게 되었다. 이 두 민족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서 예수님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거나 길로 통행하는 것도 피하였다.

예수님은 이 지나친 편견에 도전을 하신 것이다. 사마리안인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귀중함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적용>

- ◀ 이번 주에 누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것인지 정하라.
- ◀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하도록 하라.
- ◀ 가난한 자를 돋기 위한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라. 만일 그러한 사역이 없다면 이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라.
- ◀ 병원이나 양로원 또는 교도소와 같은 이 지역의 공공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보라.

<목상>

- ◀ 이 비유는 사랑으로 섬겨야 할 우리의 사역에 귀한 모델이 되어준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 ◀ 사람이 어떻게 이생과 내생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는가?
- ◀ 우리는 사람들이 안되었다고 느끼면서도 아무 것도 도와주지 않을 수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통을 분담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 ◀ 필요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나의 이웃이다.
- ◀ 이웃이 된다는 것은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 ◀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행해야 한다.

제 6 과

무엇이 더 중요한가? - 율법인가 사람인가?

핵심본문: 누가복음 13:10-17

배 경: 누가복음 6:6-11; 13:10-17; 14:1-6

♠ 주 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돋는 것이 규율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 탐구질문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사람들을 섬기고자 할 때 이를 방해하는 규율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학습목표

규율들, 관습들, 혹은 전통들이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두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텍사스의 우선 순위

- ◆ 텍사스, 미국전역 나아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한다
- ◆ 교회 내에서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본문개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규율이나 전통보다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팻 웹. 내프는 텍사스의 주지사였다. 후에 그는 베일리 대학의 총장이 된 인물이다. 내프는 설교자들이 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늘 불만스러웠다. 마침내, 그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현실에 참여하며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우리의 신앙목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섬기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없이 중요한 것을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다. 우리 텍사스의 침례교인들은 규율이나 전통에 얹매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대답은 너무나 명확하다: “예수님은 사람을 중요시 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가 중요하다.

1)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13:10-13)

예수님은 경건한 가정에서 성장하셨다. 나사렛의 목수인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율법에 순종하였고 유전으로 내려오는 유대인의 전통들도 잘 지켰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했으므로 처녀의 몸이었음에도 예수를 낳게 되었다. 그러한 경건한 가정들의 삶은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인들이 예배를 위해 모이기 시작한 곳이 회당이 되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방식에 필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됨을 인식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을 때도 그들은 계속해서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예수님 시절에는 회당이 가는 곳마다 있었다.

회당은 학교나 마을회관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무엇보다도 안식일에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곳에서 구약성경이 읽혀졌고 가르쳐졌으며 기도가 드려졌다.

누가는 예수님이 안식일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셨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4:16). 예수님은 종종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성경을 읽고 이를 해석해 주셨다. 그의 사역초기에는 고향마을에 있는 회당에서 이사야61:1-2을 읽으시고 자신이 그 예언의 성취자임을 선언하셨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그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으며 찬양을 받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가 이제 달라졌다. 사람들이 이 마을 어귀에 있는 벼랑 끝까지 그를 끌고 갔다. 그들이 낭떠러지로 밀어 내리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군중들 사이를 지나서 자기의 길을 가셨다(누가복음 4:28-30).

안식일은 유대교의 절기들 가운데 가장 신성시되는 것들 중의 하나였다. 육일동안 하늘과 땅을 만드신 후 하나님은 칠 일째 쉬셨고 이를 거룩한 날이라 정하셨다(창세기 2:2-3). 십계명중의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이다(출애굽기 20:8). 분명히 예수님도 안식일을 그 의미대로 지키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 너무 심한 규제들을 가하게 되자 종교적인 고착화와 결별하였다. 율법사들이 원래의 계명에다 규율을 자꾸만 더하여 왔다. 그들은 사람들이 짐스러워할 정도로 노동의 의미를 확대해석하고 이를 금하였다.

안식일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한 사람은 38년간이나 누워있던 그 거적자리를 들고 갔다는 이유

로 질책을 받았다(요한복음 5:1-4). 또 한번은 제자들이 밀밭을 지날 때, 비록 허기진 배를 만족시킬 정도의 양이었지만 어쨌든 이삭을 자른 일로 말미암아 비판을 받았다(누가복음 6:1-5). 복음서에도 여러 번 나오듯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그는 안식일을 어긴다는 이유로 고발을 받았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을 그가 어기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사실 그는 사람들을 돋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간적인 규율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율법주의의 틀을 벗어나도록 도전하신 것이었다.

오늘의 본문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신 모습이 나온다. 몹시 심한 장애를 지닌 여인이 거기에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예배시간 중간 중간 매우 힘들어했던 것 같다. 그녀는 꼬부라져 있어서 몸을 펼 수가 없었다. 이런 상태로 18년을 고생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의사인 누가는 이 병이 귀신들린 것이라 말하고 있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누가도 알았었다.

그녀를 보자 예수님은 가르치던 것을 멈추고 그녀를 앞으로 불러내었다. 그녀에게 예수님이 말하였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13:12). 손을 얹어 암수하자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곧 펴고 일어섰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가 규율이나 전통들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일로 비난을 받자 예수님이 이 거룩한 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마가복음 2:27-28). 하나님의 첫 관심사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종교적인 규율들이나 전통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한 특별한 날을 정하여 사람들에게 이를 지키라 하시지 않았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후에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개신을 위한 한 날을 주신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지음 받지 않았으며 교회가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

어느 손 마른 사람이 있던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자(누가복음 6:6-11).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를 고발할 이유를 찾기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나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전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하셨다(6:9).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심으로써 침묵을 지키는 그들에게 대답을 주셨다. 예수님은 어떤 날이든지 아무때나, 안식일에도 물론,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사역을 분명히 권장하셨다.

2) 규율과 전통이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에 방해가 될(13:14-16)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언급 외에,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과 가장 심각한 대립을 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율법주의적인 해석에 대한 것이었다. 율법에 근거한 신학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중요성을 경감시킨다. 규율이 사람과 하나님사이에 서서 우상의 역할을하게 될 수 있다. 게다가 규율이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종종 방해하기도 한다.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일로 인해 대단히 화가 났다. 당신은 마을의 종교지도자인 이 사람이 18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 있던 여인의 국적인 치유장면을 보고 기뻐했었을 거라 아마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고 말하며 회중들을 나무랬다(13:14). 이런 사람이 주중의 아무 날에라

도 이 여인이 치유 받는 과정에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이 회당장은 사람들을 향하여 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음이 분명하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은 그를 깎아 내릴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 보다 동물들을 더 위하는 위선자들이라고 비난하신 것은 조금도 놀랄만하지 않다.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동물들을 돌보는 조항은 있지만 아주 시급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람을 치유해도 좋다는 조항이 없다. 그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우리에서 나오게 하여 물을 먹이려 테려 갈 수는 있었어도 이런 여인을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억압에서 풀어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들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면 그 반응이 얼마나 격렬했을까 쉽게 상상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면을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다. 우리에게는 회당도 없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도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당을 갖고 있고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하루를 안식의 날로 공표 하셨으며 이 날은 세속적인 날이 아니라 거룩한 날이었다. 일곱 날 중의 이 하루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주어졌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그의 백성이다. 주의 날은 특별한 날이다. 교회는 거룩한 목적을 위한 도구이다. 그러나 그 날과 교회가 수단이 되기보다 목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왜곡되는 것이다. 교회와 주의 날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규율과 전통들이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보다 어떤 것을 해나가는 방법에 더 신경을 쓰는가? 만일 의심스럽다면, 기존의 교회들이 일요일에 놀 하는 어떤 것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라. 어느 일요일, 우리는 일요예배를 위한 주보를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의도는 우리의 예배가 좀 더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손에 주보가 들려져 있지 않으면 도저히 불안해하는 어떤 사람에게서 불평이나왔다. 교회들은 예배를 위해 시간을 짜고, 예배를 위해 순서를 정하고, 잘 알려진 찬송을 하기보다는 성가대의 노래를 순서에 넣는다. 새로 생겨난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들 중의 하나가 진부한 전통이 없어서 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그들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좀 더 민감해질 수 있다.

질서와 전통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본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들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선이고 주된 것은 아니다. 사람이 우선인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는 지속적으로 규율과 방법적인 것들을 사람의 가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 만일 어느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이를 중단하라. 만일 규율들이 사역을 방해하면, 규율을 바꾸어버려라.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거나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이는 여러분이 성급하게 서둘러 모든 것을 바꿔버리라는 의미는 아니다. 변화를 위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을 섬기기 위한 변화가 현명한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여인이 당신의 교회에서 예배를 방해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을지 생각해 보라. 당황했었을까? “당연히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때가 아직 낮아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요한복음 9:3-5)라고 생각하겠는가

3)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13:17)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소명이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지켜야 할 원리를 말하고 있다(고린도전서 10:31). 이것은 개인이나 교회모두에게 적용이 된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아름다움이 명백히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지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그분께서 영화로워지신다. 하나님은 규율들 속에서 보다 사람들 속에서 영화로워지신다. 하나님은 전통보다는 사역 속에서 영화로워지신다. 하나님은 방법들보다 자비함 가운데 영화로워지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본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18년만에 처음으로 몸을 평고 일어섰을 때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누가복음 13:13).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녀를 자유롭게 한 근원이 누구였는지 확실히 알고 떠났다.

회당장과 그를 동조하는 사람들의 냉담한 태도에 대해 예수님이 도전을 주셨을 때, 그들은 부끄러워졌다.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회당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기뻐했다. 그들은 아주 즐거워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놀라운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 “놀라운”(13:17) 이란 말은 영광스러운 이란 말로 번역될 수도 있다. 단지 이 여인을 고친 것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하신 모든 일(죄인들을 용서하심, 배고픈 자를 먹이심, 아픈 자를 고치심, 낙심한 자를 회복시키심)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다.

사도행전 3-4장은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날로부터 거지인 자에게 다가갔는지 말해주고 있다. 이 절망적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반대하던 권력자들은 사도들의 자비행위에 분개했으며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하였다. 권력자들이 감히 이 사도들을 해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 일어난 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중심의 운동이었다. 이는 죄와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하는 운동이었다. 사람들은 이에 호응하였다. 교회는 성장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4)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도우라!

톰 헨더슨은 텍사스 텁풀시에 위치한 하이츠 침례교회의 담임목사이다. 그는 텁풀지역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도움을 힘입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음식과 의복 그리고 전기세 와 응급사태에 대비한 돈이 CLTC(Churches Touching Lives for Christ)라 불리는 사역을 통해 분배되었다. 톰은 텍사스 주총회에 요청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한번 받았고 벨 침례교 연합회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대로 사람들을 돋고 있다.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들도 채워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CLTC가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몇몇 사람들은 텁풀지역의 교회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순위가 잘 되어져 있는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사람을 섬기라!

질문

1. 어떻게 하면 일요 행사를 속에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2. 오늘날에는 주의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3. 주의 날에 일을 해야만 할 사람이 있겠는가? 누가? 왜?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4. 우리 교회가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아닌가?
5. 예수님이 위선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보충설명>

■ 위선

위선이란 말의 배경은 그리스의 연극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자그대로의 의미는 어떤 한 역할을 감당하는 배우를 말한다. 배우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쓰기도 한다. 남자가 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자처럼 옷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선이란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겠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말이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였다. 이 말은 거짓행동 혹은 걸 다르고 속 다른 행동을 의미하였다.

위선자들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무엇이나 되는 양 자기를 꾸민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선하고, 기도하고, 급식하는 자들을 비난하셨다(마태복음 6:1-18).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외부적인 모습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선자라 불렀다. 그들은 콱의 곁면은 깨끗이 하였으나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무시하였다(마태복음 23:25). 그들은 아주 적은 양의 박하,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렸지만 정의, 자비와 신실함과 같은 더욱 중요한 율법의 요구들은 저버렸다(마태복음 23:23). 위선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신랄한 고발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같다고 그들을 묘사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마태복음 23:27).

<사례연구>

수잔은 침례교인은 아니었지만 어느 주일아침에 친구와 함께 다운타운 침례교회에 출석하였다. 그 교회는 주의 만찬을 하고 있었다. 담임목사님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것을 분명히 하셨다. 늘 이 교회에서 해오던 방식 그대로였다. 수잔은 자기 친구와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점에 매우 화가 났으며 그녀의 친구들도 당황되었다.

상한 감정이 남지 않도록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까?

<목상>

- ◀ 우리는 늘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물음을 하여야 한다.
- ◀ 예수님의 행동은 그가 규율이나 전통보다 사람을 중요시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
- ◀ 규율들은 종종 우리의 사역을 방해한다.
- ◀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
- ◀ 새로 생겨난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들 중의 하나가 진부한 전통이 없어서 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그들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좀 더 민감해질 수 있다.
- ◀ 사람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변화하는 것이 혁명한 것이다.
- ◀ 초대교회는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의 운동이었다.

제 7 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핵심본문: 누가복음 24:13-35
배경: 누가복음 24:1-35

♠ 주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였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알릴 것이다.

♠ 탐구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쉽사리 경험하고 기꺼이 이를 알릴 수 있을까?

♠ 학습목표

부활하신 예수를 기꺼이 경험하고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본다.

텍사스의 우선 순위

- ◆ 텍사스, 미국 전역 그리고 세계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 ◆ 교회 내에서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 ◆ 기존의 교회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

<본문개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더 쉽게 동참하게 된다.

롭 건은 텍사스 중부지역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몇 년 전, 그가 달라스 아나톨 호텔에서 열린 판매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수백명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다른 수백 명의 일반 투숙객들이 그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8층에 있는 자기 방에 가려고 룹이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의 일이다. 다른 한 사람이 이미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는데 그는 이상하게도 낯익어 보이는 키가 크고 잘 생긴 사람이었다. 룹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양으로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엘리베이터가 8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마지막으로 그를 다시 한번 보려고 고개를 돌리게 되었다. 그 때 그 남자가 룹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았는지 손가락으로 룹을 가리키며 “찰튼 헤스톤입니다”라고 말했다. 룹은 깜짝 놀란 채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지는 그를 보았다. 더 이상 이 유명한 영화배우를 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뭘가 말해 줄 중요한 것이 생긴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실은 아직도 그는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그 유명한 사람이 자신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룹은 여전히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잠시 후 그 낯선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었고 이 만남은 거기 있던 두 사람에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주었다.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1) 예수의 부활을 의심한 제자들(24:13-24)

“그 날은” 주의 첫째 날이었다(24:13; 24:1을 보라). 이는 부활주일이었다.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가고 있었다. 엠마오 까지는 약 7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다. 월리암 바클에이는 그의 누가복음 주석에서 엠마오의 위치를 예루살렘 서쪽이라고 확실히 말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불분명하다.

만일 그것이 맞다면, 그들은 석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뒤로하고 온 예루살렘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이다.

두 사람은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각자가 이해한 바를 나누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열띤 논쟁을 하는 활발한 토론이었던 듯 싶다. 갑자기, 그들이 죽었다고 믿고 있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며 지켜보고 있었다. “저희가 그 인줄 알지 못하더라”(누가복음 24:16)는 말은 그들이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리라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저희가 길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예수님의 물으셨다(24:17). 둘 중의 한 사람은 글로바란 사람이다. 이 사건 외에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다른 제자는 누군지 모른다. 이 다른 한 사람이 남자였으리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글로바의 아내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제시되고 있다. 그 두 제자는 그 사람의 간접에 이내 반응을 보인다. 그들은 잠시 멈추

어 셨다. 얼굴에 슬픈 빛이 역력하다. 만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그 전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일어났던 일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듣고싶어 하셨다. “무슨 일이 놈?”(24:19)라 물으시며 대화를 이어가셨다. 나사렛 예수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그들의 설명은 믿음의 진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심을 표하는 고백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였다고 믿었다. 그는 강한 확신을 갖고 가르치신 분이셨다. 그이 이적들은 결코 부정될 수 없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가 될 것을 소망했었다(24:21). 구속한다는 말은 속량하다 혹은 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준다는 의미이다. 글로바와 그의 동료는 로마의 압박에서 나라를 해방시킨다는 의미로 이 말을 이해하였다. 그러니 그들의 지도자가 십자가형을 당함으로 이제 그들의 소망이 영영 사라져 버렸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잖은가?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를 죽음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실망감을 더욱 부추겼다.

그가 죽은지 삼일 째 일어났다는 일이 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여자들은 그가 묻혔던 장소에 갔었다. 시체가 없어졌고 묘실은 비어있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을 보았다고 그 여자들이 보고했던 것이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그 무덤을 찾아가 보았다. 요한복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와 아마도 요한이었던 것 같다(요한복음 20:3). 그들도 마찬가지로 빈 무덤만을 보았고 예수님의 시체는 거기에 없었다.

그 여자들의 말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죽음에서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이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 믿지 못했었다. 엠마오에서 온 글로바와 그의 동료도 친구들에게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슬픈 여정의 시점에서 있었고, 그들의 꿈도 깨어져 버린 시점이었던 게 분명하다.

어떤 사람들은 1 세기의 사람들이 현대의 우리들보다 과학적인 이해에 있어서 우매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실 그들이 우리들보다 초자연적인 것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그의 부활을 믿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조차 의심하였었다. 그들의 세계관은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 낙심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의 이야기를 꾸며내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성 없는 이야기인지 모른다. 그들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할 수 도 없었다.

오늘날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도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사람들조차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지적으로, 영적으로 갈등을 하였음도 전혀 충격적인 것이 아니다.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중심이지만 이를 단언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들었던 제자들도 이를 의심했고 나중에서야 믿었던 것이다.

경건한 침례교인으로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도 부활을 믿는데 있어 겪었던 갈등을 이야기 한 적이 있다. 그는 청소년시절에 아멘으로 기도를 끝내기 이전에 “부활을 믿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들 했었다고 한다.

내가 믿음의 문제로 갈등을 겪을 때, 귀신들린 자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 십사하고 부탁할 때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었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누가복음9:24)!

2)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24:25-32)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반응했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는 믿기를 주저하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자신이 고통 당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자신도 그를 따르는 자들과 나누었을 뿐더러 이 주제는 구약에서도 언급된 것이었다. 만일 그들이 좀 더 부지런히 성경말씀을 공부했었더라면, 현재 그들이 겪는 실망은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예수님이 메시야인 것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 주는 증거들 중의 하나는 그가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신 것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들은 구약전체를 통해 볼 수 있다. 고통 당하는 종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53장 말씀이다. 이 말씀은 그가 고통을 받아야 할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끝까지 읽어보면, 종이 당하는 고통으로 이 장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 위대한 성경의 한 장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세 사람이 계속해서 엠마오를 향해 걸어갈 때, 예수님이 이 두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관통하게 주셨다. 그는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의 저자인 위대한 선지자 모세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여 구약의 나머지 부분까지 언급하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지 보여주셨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경공부 시간이었음에 틀림없다. 그 위대한 선생과 함께 공부해봤으면 하고 우리는 소원하게 된다. 그의 출생, 사역,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그가 언급한 성경의 구절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그 공부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예수가 구약의 메시야적 소망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신약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들 앞에 놓여진 7마일의 여정을 시작하며 그 두사람은 걱정이 되었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지쳐있었고 정서적으로도 고갈되어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성경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파곤함조차 잊고 밤을 새울 장소에 다 다르게 되었다. 이들이 그날 밤을 함께 보내자고 예수님께 요청함은 물론이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라며 정했다(누가복음 24:29).

예수님은 잠시 머물렀고 그 세 사람은 식사를 함께 했다. 초대된 손님이 주인처럼 행하는 모습이 이 두사람에게는 이상했음에 틀림없었으나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그가 뺨에 대해 감사하고, 떼어서 나누어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들이 그를 알아보게 된 것이다: 이는 예수님이셨다. 처음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간단한 식사를 나누시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증인들의 간증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개인적인 혹은 함께 한 예배를 통해, 그리고 주의 만찬을 거행함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살아 계신 주님은 길을 가던 그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오신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되었을 때 그가 우리에게 오신다. 그는 오셔서 우리의 불안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신다. 그가 오셨을 때 우리는 그가 살아 계심을 알게된다.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그를 알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쟁은 사고의 행위에서 기인한다. 증거들은 많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웠음이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게다가 그걸 믿어야 다른 모

듣 것들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우선 순위는 아니다. 믿음은 우리의 정신과 그 이상의 무엇을 포함하는 마음의 문제이다. 우리의 믿음이 주춤거릴 때, 엠마오의 제자들이 걸었던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즐거이 외칠 수 있게된다. 그는 정말 살아나셨다!

부활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나누기 이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이 과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시다”라는 큰 주제 속에 속한 한 부분임을 기억하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 그 분을 섬길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아서 다가오신다. 우리가 “이 소자들 중 가장 작은자”들에게 다가가서 사역을 할 때 바로 그곳에서 그 분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담겨져 있다.

3)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24:33-35)

그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앞에 있음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 자신의 임무를 성취하셨던 것이다. 그들은 이제 그가 살아있음을 전적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지쳐있을 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서 깨닫지도 못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게 바로 이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친구들과 이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내가 짐작컨대 그들은 막 시작한 식사도 먹지 않은 채 길을 떠났을 것이다. 음식은 나중에 먹으면 된다.

그들은 천천히 터벅터벅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어둠이 이미 짙게 깔린 그 길을 그들은 서둘러 걸었다. 전에도 이 정도의 거리를 여러 번 여행한 적이 있었겠지만, 이번만큼 그렇게 빨리 걸었던 적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헬레벌떡 도착하여 다른 제자들을 찾아보았다. 그들이 방문을 열어젖히고 들어섰을 때, 다른 제자들은 이미 그 복된 소식을 나누며 축하하고 있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24:34).

나는 킹 제임스역에 실린 이 구절을 좋아한다, “주님은 진실로 살아나셨다.”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말로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경험을 통해 그가 진실로 살아나셨음을 말할 때 그것이 더 확신 있는 것이다!

시몬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에 대해 좀 더 알면 좋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5:5에서 바울이 확증해 주는 것처럼 그 전날 일어났던 일이 전부이다. 우리가 또 아는 것은 그 기념비적인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다. 그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놀라움 그리고 기쁨이 뒤섞인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재 확신시키셨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된 일임을 말씀해 주셨다.

먼 과거의 이 경험을 되새겨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당신이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처럼 느끼게 될 때까지 이 장면을 반복해서 읽고 생각해 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뻐할 때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우리가 주의 첫 날에 모이는 이유도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작든 크든지 교회에 모여 그를 찬양하고 그 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선포하고, 나누고, 지붕 위에서 외칠 소식을 갖고 있다.

4) 가서...말하라!!

부활의 소식은 교회 안에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온 세계, 온 백성,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교회문헌에 공헌한 두 번째 책인데 이 책은 어떻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그 너머로 말씀을 전파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그들의 메시지의 중심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는 또한 잃어버린 세상, 그리고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린도전서 15:17-18, 20).

이것이 우리 텍사스 침례교인들의 존재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길거리로 이 소식을 들고 나가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 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까지 집집마다 찾아가고, 각종 시설들을 방문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이를 전해야 한다. 시골로도 가고, 도시중심에도 침투하고, 교외에도 가서 사람들을 일깨워야 한다. 주님은 진실로 살아나셨음을!

질문

1. 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2.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도록 어떻게 우리를 계발할 수 있는가?
3. 당신의 경우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가장 강한 이유는 무엇인가?
4. 당신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나타나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 부활하신 주님의 복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충설명>

■ 부활 후 나타내심

몇 번이나, 어떤 순서로, 그리고 누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셨는가?

이 점에서 복음서들을 조화 있게 다루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가 예상하듯이 기록상에 나타난 차이점들은 저자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증거 했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상호간에 모순되는 점이 없음이 명확하다.

부활한 바로 그 날에는 다섯 번의 나타나심이 있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요한복음 20:1-8), 두 번째는 무덤을 찾은 다른 여자들에게(마태복음 28:1-10),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누가복음 24:34), 그리고 네 번째는 글로바와 그의 동료에게(누가복음 24:13-32),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누가복음 24:36-43; 요한복음 20:19-25).

일주일 후 그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다(요한복음 20:26-31; 고린도전서 15:5). 후에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한복음 21) 갈릴리에 있는 산 위에서 11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마태복음 28:16-20). 부활하신 후 40일만에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은 베다니 까지 그를 따라갔다(누가복음 24:50-53; 사도행전 1:3-8). 거기서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고린도전서 15:5-8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500명 이상의 제자들과 또한 야고보(예수님의 동생)에게 보이셨음을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언급 없이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는 아마도 승천하신 후의 일이었을 것이다.

<사례연구>

아더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났다. 청소년기에는 부모님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초자연적인 것을 부정하고 부활을 잘 믿지 않는 세계관과 대면하게 되었다. 그의 무신론적인 의심을 어떻게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겠는가?

<목상>

- ◀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중심이지만 이를 단언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들었던 제자들도 이를 의심했고 나중에서야 믿었던 것이다.
- ◀ 살아 계신 주님은 길을 가던 그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오신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되었을 때 그가 우리에게 오신다. 그는 오셔서 우리의 불안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신다.
- ◀ 주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말로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경험을 통해 그가 진실로 살아나셨음을 말할 때 그것이 더 확신 있는 것이다!
- ◀ 우리는 선포하고, 나누고, 지붕 위에서 외쳐야 할 소식을 가지고 있다.
- ◀ 부활이 소식은 교회 안에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제 8 과

누가 초대받았는가?

핵심본문: 누가복음 5:29-32; 14:12-15
배경: 누가복음 5:27-32; 14:1-24

♠ 주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과 또 우리와의 교제에 초대하여야 합니다.

♠ 탐구질문

주님과 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우리가 초대하는 사람들의 명단은 예수님이 초대하였을 사람들의 명단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

♠ 학습목표

예수님이 초대하였을 사람들의 명단과 우리의 초대명단을 비교해 본다.

텍사스의 우선 순위

- ◆ 텍사스, 미 전역,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한다.
- ◆ 교회 내에서 또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 ◆ 기존의 교회들을 견고케 하고 새 교회들을 개척한다.

<본문개요>

우리의 교제권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시킬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알게될 것이고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확신하게 될 것이다.

해롤드 엘리스는 텍사스 벨카운티에 있는 교도소사역의 창립자이고 지도자이다. 이 사역은 "수감자들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Jesus Acting in Inmates's Lives)"이란 말의 첫 글자를 따서 J.A.I.L.이라 불리운다. 이 창조적인 사역의 열매로 최근에 생겨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석방된 죄수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다른 관심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펠로우십"이라 불리우고 있다. 텍사스 벨튼에 있는 벨튼 제일침례교회의 미션교회인 이 교회는 목사님도 있고 자체 빌딩도 갖고 있다. 그들은 화요일 저녁에 모임을 갖는데 이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자신들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해롤드는 이 펠로우십을 이름하여 반석교회라 하였다. 이 사람들이 좀 더 전통적인 교회에 잘 동화될 준비를 갖추기까지 거부감 없는 환경에서 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역을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1)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 예수님(5:29-32)

오늘의 핵심본문인(누가복음 5:29-32; 14:12-15) 이 두 구절은 식사를 위해 모인 사회적인 친교모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야기이다. 첫 번째 이야기는 새로이 제자가 된 레위(마태)가 예수님을 위해 마련한 잔치이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저녁식사에 예수님을 초대한 이야기이다. 이 두 이야기에서의 초점은 모두 누가 초청되었고, 누가 참석했고, 누가 환영을 받았는가이다. 두 경우 모두 특별히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모으는 기회가 되어버렸다.

분명히 이 두 사건 모두 본문에서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이 두 이야기는 하나님 왕국의 성격에 대한 교훈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교훈들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의 교제권에 포함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전도집회에 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과 식사교제에 초대하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식사교제는 관계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친밀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여기서 레위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왜 마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졌을까? 1세기에는 사람들이 아랍어 혹은 히브리어 이름 그리고 헬라어 이름을 갖고있었다.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이 복음서에서는 여기서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는 세리였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부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5:27). 마태는 즉시 응답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상대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조차도 마음을 여시고 계셨음을 암시해 준다. 그는 사회적으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다.

열 두 제자들의 구성자체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구석이 있다. 네 사람은 어부였고(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한 명은 열심당원(급진 국수주의자)이었다. 그들은 잘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믿을 구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다. 마태는 그래도 복음서 하나를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렀을 때, 이 일은 모두에게 충격적인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미워하였다. 그들은 세리들을 반역자들로 간주했다. 그들은 자기 백성들을 로마정부에 팔아먹고 착취하는 자들이었다.

그 당시의 세금 징수방법은 오늘날과 현저히 다름을 알아야 한다. 부정직한 세리가 대부분 매우 부자가 되었다. 상관에게 일정한 액수를 상납하고 자신은 겉어들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겉어들이면 되었다. 마태가 집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 수 있었음을 볼 때 그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태는 그 잔치에 대부분이 세리였을 그의 친구들도 초청하였다. 그의 옛 친구들이 자기의 새로운 친구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음이 분명하다. 이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도였다. 예수님을 이제 막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어느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소개할 수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가정에서보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비공식적인 환경이 외부인 들에게는 덜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타적 관심을 보여줄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어디나 줄곧 따라 다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마태와 친구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한 숨을 쉬었다. 이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과 교제를 즐기기 막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불평을 하며 감정을 드러내었다(5:30). “죄인”이란 말을 언급한 걸로 보아 거기에는 세리들을 말고도 다른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죄인들은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교회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주는 규율과 전통들의 영향아래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들은 율법사들이 공중하는 관례들에 조차 얹매이지 않았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셨다(5:31-32). 교만하고, 자기 의에 가득 찬 종교적인 권세자들은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어떤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한편, 세리들과 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었다. 그들은 선하다는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자백했다. 예수님은 이들과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고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웠다.

2) 회개예로 초청하시는 예수님(5:32)

회개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을 빼놓고는 예수님의 초청이 지니는 총체성에 대한 논의가 온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복음에로의 부름은 회개예로의 부름인 것이다. 우리의 본문은 이 점에서 명확하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고 하셨다(5:32). 메시야 시대의 도래를 알리면서,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였다(마태복음 3:2).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때가 쌌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마가복음1:15).

총체성은 변화된 삶에 대한 복음의 요구를 타협하는데 까지 변질될 수 있다. 예수를 따르라고 부르는 현세의 외침에는 종종 회개란 말이 빠져있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결코 아니다. 복음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도자예배를 계획하는 교회들이 칭찬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가해지는 비판들이 때로는 공정하지 않은데 이유는 많은 이런 교회들이 복음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이

다. 예수님도 구도자에 친근한 분이셨다. 동시에 그는 죄된 행동과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본을 따름에 있어서, 잊어버린 자에게 다가서는 창조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데 전혀 희생을 치르지 않는 방법들을 찾는 것은 적당치 않다.

누가복음 5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다(5:1-11). 주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시면서부터 그를 가르치셨다. 그가 말을 마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도전하였다. 베드로는 이미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허탕을 쳤기 때문에 주저하였지만, 그래도 그 말에 순종하였다. 그물이 고기로 가득 차자 자신이 신의 존재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 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하였다(5:8).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성과 능력이 계시되는 시점에서 겸손해 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의 알맞은 반응인 것이다. 예수님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쥐하리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셨다(5:10).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5:11).

예수님의 부름에 대한 마태의 반응도 베드로의 것과 같았다. 그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5:28). 베드로와 마태의 경우에, 이들이 직업을 버린 것은 회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이 모두 자기 직업을 버려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 된 삶과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길을 따르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새로운 형태의 율법주의는 아닌가? 결코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셨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태복음 5:20). 우리가 회개라는 말과 개선이라는 말을 비교해 볼 때 이 차이가 이해된다.

바리새인들은 개선, 즉 자신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율법에 순응하는 것을 요구한다. 예수님은 회개를 요구하는데 이는 죄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하다‘라는 헬라어에는 사람의 의식구조를 바꾼다는 의미가 있다. 회개는 혁명적인 변화이며 이는 강한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내주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복음전도는 성령의 능력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 정의될 수 있다. 이 말은 만일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를 포함하는 온전한 복음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 하실 것을 우리가 안다는 의미이다. 복음의 선포를 제대로 대 diện한 사람이라면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든지 아니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마태의 삶에 나타난 그 차이를 안다. 마태의 식사초대에 나왔던 세리와 죄인들의 반응은 우리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임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 모든 사람을 향하여 문을 여는 일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이런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회개케 부르실 것을 안다.

3) 별 볼일 없는 자들을 초대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14:12-15)

이제 누가복음 14장을 보도록 하자. 1-24절은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한 유력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계획된 모임이었다. 그는 유심히 관찰 당하고 있었다. 고창병 든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 이는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는 규율을 어긴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14:1-6을 보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한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만일 안식일에 아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아이나 소를 건져내지 않겠느냐면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손님들은 계속해서 왔고 식사가 도착할 시간이 되었다. 예수님은 손님들의 행동과 신분을 지켜보았다(14:7-11). 그리고 나서 그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셨는데 하나는 손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인을 위한 것이었다. 손님들은 상석에 앉으려고 얹히고 설쳤다. 이 특별석은 상석이었고 가까운 곳에 주인이 앉았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인물로 인정되어지길 원한다. 예수님은 경고하시기를 만일 한 사람이 스스로 상석에 앉을 경우 주인이 다른 사람을 더 존귀히 여겨 그 자리에서 나와달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 때쯤이면 다른 자리들은 다 차기 때문에 혹시 남아있는 말석에 가서 앉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높인 손님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충고하시기를 차라리 처음부터 낮은 자리를 택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혹시 주인이 이를 좋게 여겨 더 좋은 자리로 옮기라 청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을 요구하신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곧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나 겸손한 사람은 적당히 높임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천국에서도 이와 같을 것임을 지적하시고 계신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미덕이다. 게다가 겸손한 주인은 그 다음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실수들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고창병이 든 사람과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주인의 친구나 친척들이었다. 예수님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셨다. 그는 주인으로 하여금 늘 하던 테두리를 벗어나 “가난한 자,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을 청하라”(14:13)고 도전하였다. 이 식사에 온 손님들은 모두 장차 이 주인을 초대하거나 그러리라 예상되는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은 장차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하라고 요구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의인의 부활시에 보상을 받을 것이라 암시하셨는데 이는 마지막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한 언급이다.

예수님이 의인의 부활에 대해 언급하자, 식탁에 있던 사람중의 하나가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14:15). 메시야 시대의 도래를 잔치에 비유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관례였다. 이 사람도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자들이 거기에 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하셨다. 그들은 평계를 대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은 현재 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되어진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은 족장들과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초대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가 왔으나 그를 거절하였다. 이들 종교적인 엘리트들은 주인의 잔치에서 제외될지도 모르나 다른 사람들은 초대받고 이에 응할 것이다. 가난한자,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이 포함될 것이다.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4)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교회를 향한 도전은 총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너무나 자주, 교회들이 전도를 등한시 해왔다. 유혹은 먼저 몸인 교회의 성장과 안정에 기여를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길을 뻗친다. 우리는 우리에게 불편을 느끼고 맞지 않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을 너무나 일찍 포기한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교회들은 소수 계의 사람들이나 장애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른 그룹들을 전도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우리는 별로 달갑지 않는 사람들이 올 때 소극적으로 맞이하거나 그들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운데 끌어들이기를 주저했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이전 까지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기 전까지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만족할 수 없다.

질문

-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이 마태에게는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를 주는가?
- 우리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소개할 수 있는 전략들을 무엇이 있겠는가?
- 최근에 벼롭받은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가?
- 도저히 갚을 능력은 없지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그룹이 있는가?

<보충설명>

■ 세리

신약시대의 세리들은 로마정부를 위해 일해주었고 자기 백성들의 눈에는 반역자로 보였다. 로마정부는 제일 높은 입찰가를 내논 자들에게 세금징수의 권한을 주었다. 계약을 따낸 사람들은 실제로 세금을 걷는 일을 할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삭개오(누가복음19:1-10)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19:2). 마태는 분명 이보다 낮은 계급이었지만 여전히 부자였다. 세리들은 계약상의 금액을 상납하기에 충분한 돈을 사람들로부터 징수하고 이에 더 남는 것은 자기들이 가졌다. 몇몇 원로 직원들은 세금이 최종 목표 액에 도달하기도 전에 수수료를 받아가졌다.

세리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죄인들과 매춘부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되었다. 그들은 대개 백성들로부터 탈취한다고 비난받았고 이방의 문자와 우상숭배의 내용을 담은 로마의 동전을 유통시킨다고 비난받았다. 게다가 이들 별로 이름 없는 세리들은 부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더욱 늘리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태나 삭개오와 같은 자들과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 때문에 비난당하신 것이 이해가 되는가?

<적용>

- 친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전도하자
- 친구를 필요로 하지만, 교회에는 다녀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전도하자
- 방문자와 새로운 교인들을 위한 교회사역에 참여하자
- 이웃에 이사온 가정과 친해지라. 지역사회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

<목상>

- ◀ “인구의 분포가 점점 다양해지며 증가추세에 있는 텍사스는 2000년에는 2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구성 비율로 보면, 백인계가 11.3백만명, 히스패닉계가 5.9백만명, 흑인계가 2.4백만명, 아시안계가 50만명, 그리고 인디언계가 6만명이 될 것이다.”
- 미국 인구조사국 -
- ◀ 오늘날에도 여전히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전을 만들어준다.
- ◀ 회개가 없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
- ◀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이는 죄로부터 돌아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한다.
- ◀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 모든 사람을 향하여 문을 여는 일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이런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회개케 부르실 것을 안다.
- ◀ 자기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곧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나 겸손한 사람은 적당히 높임을 받을 것이다.
- ◀ 예수님께서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제 9 과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핵심본문: 누가복음 15:11-32
배경: 누가복음 15:1-32

♠ 주제

잃어버린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행복해 하신다. 우리들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 탐구질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렇게 좋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적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 학습목표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받아들인다.

텍사스의 우선 순위

- ◆ 텍사스, 미국전역, 모든 열방과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 ◆ 교회 내에서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 ◆ 그리스도인 가정들을 일구어 나간다
- ◆ 기존의 교회들을 견고케 하고 새 교회들을 개척한다

<본문개요>

하나님은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는 그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가운데 기쁨을 누리십니다. 앓어버린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함께 기뻐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한 침례교의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있었고 한 편의 간단한 드라마를 통해 찬양의 메시지를 부각시키고 있었다. 이 교회의 연장자이고 가장 존경받는 남자들 중의 한 분이 초대교회 시대의 평범한 아버지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회중 가운데 한 젊은이가 제 멋대로인 아들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아버지는 손을 이마에 올린 채 회중들 너머 먼 발치의 복도를 바라보며 강단에 서 있었다. 성가대가 “기뻐하세 기뻐하세 내 아들이 집에 돌아왔네”라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그 아들이 절를거리며 복도 뒤쪽으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옷은 갈기갈기 찢기었고, 머리는 덥수룩했으며, 얼굴과 팔은 얼룩투성이 더러웠다.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자 마자 달려나가 맞이했다. 그는 아들을 껴안고 아름다운 옷을 걸쳐주었으며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샌들을 신겨주었다. 거룩한 침묵이 회중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감동되었다.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가진 질문은 “실제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라는 것이다.

1) 반항할 자유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15:11-12)

당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사랑 받는 이야기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유명한 이유중의 하나는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당자의 비유 라기 보다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유 혹은 용서하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낳을지도 모르겠다. 이 잊지 못할 이야기에서는 질문할 필요도 없이 물론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첫 번째가 앓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15:3-7), 두 번째가 앓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15:8-10),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타락한 아들에 대한 비유이다(15:11-31). 이 비유들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고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한다며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난하던(15:1-2)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 대한 대답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계신 것이다.

이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사이의 관계를 묘사한다는 점에서 또한 인상적이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때로 우리 자신을 보게되는 거울과도 같다. 조금만 상상해 보아도 우리는 이 두 아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먼저는 반항하는 당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한다. 그러나 슬프게도 너무나 자주 우리는 분노하는 형이 곧 우리 자신임을 보게된다. 동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에서 분리되어간 사람들을 대표한다. 형은 앓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기뻐하기를 거부하며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대표한다.

구약의 율법에는 장자가 아버지 재산의 삼분지 이를 상속받기로 되어있다(신명기 21:17).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둘 있는 가정에서는 둘째가 삼분의 일을 받았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땅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나누어 줄 수 없으나 몇몇 경우의 예외는 있었다. 자기 뜻에 대한 동생의 요구는 아버

지와 함께 살기 싫어했음을 암시한다. 그는 아버지의 권위를 거절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했다. 자기를 사랑해주고 어린 시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던 그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버린 것이다.

논쟁의 여지도 없이 아버지는 재산을 둘로 갈랐다.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으로서만 오로지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적어도 이 의미는 우리가 책임질 줄 아는 존재라는 것이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유로워야만 된다. 하나님은 조종이 가능한 인형이나 로봇을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복종하든지 이를 거절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의 첫 부모세대로부터 우리는 죄의 성향을 물려받았고, 실제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였다(로마서 3:23). 이 반항하는 아들의 이야기는 에덴동산에 그 기원을 두며 그 후 모든 세대에서 반복되어져 왔다. 당자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에게 반항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2) 뚫어버린 자가 돌아오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사랑(15:13-20)

상속한 재산을 손에 쥐자, 이 둘째아들은 다른 나라로 떠나버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가정을 기억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만의 삶을 꾸려나가고 기분에 내키는 대로 시간과 돈을 써버렸을 것이다. 그는 “허랑 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였다”(15:13). “방탕 하는”이란 말은 낭비하는, 돈을 함부로 쓰는, 절제하지 못하는 이란 의미이다.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준 것을 낭비해 버렸다. 제멋대로 사는 삶은 무책임한 삶이다. 이 반항하는 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 생각하여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누가복음 12:19)라고 말하던, 예수님의 다른 비유(누가복음12:13-21)가운데 나오는 부자 농부처럼 살기 시작했다. 그 농부처럼 여기의 이 탕자도 자신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한 채 끝까지 어리석게 행하고 만다. 아버지에 대한 탕자의 반항은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채워지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었는데, 이제는 끔찍한 생활에 빠지고 말았다. 돈은 날아갔고, 경제사정은 말이 아니었으며 그 땅에 기근마저 들었다. 그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버렸고 친구들도 그를 버리고 가버렸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너무나 시급한 나머지 돼지를 키우는 일에 뛰어들었다. 얼마나 비참해 졌는가? 자존심 강한 유대인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돼지를 치는 일이었던 것이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

임금이 얼마나 돼지인지를 모르겠지만 탕자가 돼지 키우는 일을 해서 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았을 것이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풀 나머지 돼지들이 먹는 사료조차 좋아 보였다. 이 “쥐엄열매”는 쥐엄나무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이 섭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이었다(15:16). 그는 심리적으로 돼지들의 삶이 자기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가 정신이 들었다”(15:17).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 보게 되었고 이렇게 살라고 지침 받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 둘째 아들은 이런 비참한 상태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가장 낮은 하인도 자기보다 잘 먹는 그런 집과 아버지를 생각했다.

이 시점에서 그가 내린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니다. 당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

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15:18). 그는 하인으로 써 달라고 요청할 판이었다. 한 때는 아들이었던 집에 하인이 되려는 것이다. 아버지의 자비에 호소할 참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과연 도와주실까? 이 아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도저히 알 수 없었다. 단지 그는 그렇게 해야 할 필요만을 알 따름이었다.

아버지는 한 시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기다렸다. 아직 아들이 멀찌감치 있는데도 아버지가 그를 보았고, 달려가 껴안았다. 여기서 우리는 반항하던 죄인의 회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만나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되는 것이다.

3) 죄인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15:21-24)

이 이야기에서 진정한 탕자는 아버지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 prodigal이라는 말이 아들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낭비하고 무절제한 소비를 의미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prodigal이라는 말이 아낌없이 주는 또는 터무니없는 이라는 의미라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자신을 거부하고 나가서는 상속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온갖 몸짓과 행동으로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그에게 다가간 것이다. 그는 걷지도 않았다 달려갔다. 아들은 자신의 죄와 쓸모없는 인간임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낫은 하인들이 하는 허드렛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잘라 말하며 그 하인들을 명하여 돌아온 아들에게 아들의 예우를 다 할 것을 명했다. 아버지의 포옹과 입맞춤은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신시켜 주었다. “제일 좋은 옷”은 기쁨과 영예를 나타내는 그런 옷이었다. “반지”에는 가족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고 사랑 받는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권위를 상징했다. 하인들은 맨발로 다닐 수 있었으나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 아들은 반드시 샌들을 신어야 했다. “살찐 송아지”는 매우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었다. 자신을 배운 망덕한 놈이라 생각하던 아들에게 얼마나 황송한 축하인가! 아들은 자비를 구했으나 은혜를 받았다. 자비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별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받는 것이다.

이 비유의 메시지는 이렇다: 들어보시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탕자의 모습 속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주저 없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 맞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낭비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마도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묻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온 젊은 관원과 같을지도 모른다(누가복음 18:18-23). 그 젊은 관원은 도덕적인 삶을 살았지만 무엇인가 빠져 있었다. 그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부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했을 때 그 젊은 청년은 돌아서 베리고는 자신의 재물을 예배하러 갔다.

사실 말이지, 우리는 천성적으로 그리고 후천적으로 모두 죄인들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라고 분류하려는 경향을 버리자. 모두가 죄를 범했다.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당신이 어디에 있었던 시간에 당신은 “먼 나라”에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신다.

4) 기쁨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15:25-32)

누가복음 15장에는 행복이 깔려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축제분위기이다. 세 개의 파티가 벌어지는 테,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15:6)이고, 다른 한 번은 잃어버린 동전이 발견되었을 때(15:9)이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얻었을 때(15:23)이다. 기쁨의 분위기는 비단 이 비유들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다. 더 큰 기쁨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펼쳐졌다(15:7,10). 이렇게 기쁨이 상달되는 이유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한 때문이고,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의 구원을 축하하시려고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다!

그러나 잠깐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누가 이런 축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가?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은 집에 없었다. 그는 들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제 그가 긴 하루의 일을 끝내고 집으로 다가갈 때, 음악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인에게 물어본다. 그들이 동생의 돌아온을 축하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화가 났고 그 파티에 참석하기를 거부했다.

아버지는 형이 파티에 참석하도록 권하려고 갔다. 형이 거절했다. 그는 입이 뿌루퉁하니 빠져 있었다. 아버지가 자기는 몰라주고 동생만 위한다고 비난했다. 창기와 놀아나며 자기는 전혀 해 볼 수도 없었던 짓들을 하다가 돌아온 동생도 비난했다. 이 형은 아버지 재산의 삼분지 이를 물려받았고 여전히 동안 내내 집에서 모든 유익을 다 누려왔던 바로 그 사람임을 기억하자. 그러나 그는 자신을 마땅히 아버지께 사랑 받는 아들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일해서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받은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 그는 자기중심적인 율법주의자였다. 그에게는, 자기 동생이 규율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마땅하였다.

종종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24절 까지만 언급하고 끝낸다. 그런 접근도 나름대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비난하던 도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의도를 놓치게 된다. 형은 죄인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나타내 준다.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우월감은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반 대중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정당화시켜주었다.

이제 우리는, 예전의 이 바리새인들을 비웃어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들고 있는 거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죄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은가?

5)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만일 당신이 돈주머니나 지갑 같은 귀중한 것을 잃었다가 찾아 본 적이 있다면, 잃어버린 심정이 어떻고 또 다시 찾은 그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알 것이다. 최근에, 여덟 살 난 손녀의 새로 산 강아지가 뒷마당에서 없어진 일이 있었다. 그 아이는 마음 아파했고 매우 낙심되었다. 그녀의 부모들도 마음이 심란했다. 손녀아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였다. 사실 그 아이는 30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우리에게 이메일을 하여 잃어버린 강아지를 좀 찾아봐 달라고 하였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슬픔을 이해했고 함께 해 줬다. 잠시 후에 좋은 소식이 왔다. 이웃집 사람이 그 개를 안전하게 데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모두가 한 숨을 쉬고 즐거워했다. 우리는 파티를 열지는 않았지만 축제 같은 느낌을 가진 것은 확실하다.

텍사스 침례교회들의 제일 우선 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부담감이 있는가? 텍사스가 하나의 선교지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곳을 복음화해야 한다는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을 전도하고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가?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심장을 바꿔야 하는가? 내가 최근에 참석한 예배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한 일이 있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 그들이 앞으로 나가자 회중 가운데서 여러 명이 나와서 좋아하고, 함께 서 있어주고, 안아 주며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것이었다. 전혀 형식적이거나 부자연스럽지 않았다. 내 가슴이 다 뜨거워졌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나쁜 태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운 품으로 돌아가는 향자들을 보고도 아무 감정 없이 그저 당연시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질문

1. 탕자의 비유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는가? 어떻게 그런가? 당신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
2. 만일 돌아오는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형을 먼저 만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3.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태도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4.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향한 나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5. 당신은 형의 태도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가?

<보충설명>

■ 읽다

한 농부의 집을 방문했던 복음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그는 농부에게 “당신 길을 잃었소?”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농부가 “아니요, 난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왔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 보여주는 한 예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잃어버린”사람이라 일컬을 때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누가복음 15장은, 19:1-10도 아울러, 교리적인 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잃어버린”이란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 “잃어버린”이란 말은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 잘 나오지 않는 말이다. 사도 바울의 글들에서도 “잃어버린”이란 말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잃어버린”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한 형태가 고린도후서 4:3에 사용되고 있지만 NIV 번역본은 “망하는”이라 번역했다. 헬라어의 다른 형태들은 과과하다, 과멸시키다, 또는 심지어 죽이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누가복음 15장에서처럼 “잃어버린”이란 말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과멸의 길로 들어선 상태를 확실히 상징하고 있다면 이건 무서운 말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우리가 의미하는 바,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된”이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한 “잃어버린”이란 말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 유용한 개념이 된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

<사례연구>

두 사람의 교인들이 전도방문중에 한 젊은 부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였다. 이 부부는 다음 주일예배에 앞으로 나아갔고, 침례를 받고 교회의 교인이 되는 분으로 소개되었다. 그들은 잠시동안은 꾸준히 참석하셨으나 점점 예배에 빠지더니 결국에는 아예 명단에서 없어졌다. 교회에 나오질 않아 연락해보니 그들은 교회에 친구도 없고, 편안하고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음을 넘지시 말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는가?

<목상>

- ◀ 조금만 상상해 보아도 우리는 이 두 아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면저는 반항하는 탕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한다.
- ◀ 하나님은 조종이 가능한 인형이나 로봇을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복종하든지 이를 거절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이다.
- ◀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에게 반항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아들은 자비를 구했으나 은혜를 받았다. 자비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받는 것이다.
- ◀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당신이 어디에 있었던 지간에 당신은 “면 나라”에 있었던 것이다.
- ◀ 하나님께서는 젊어버린 한 사람의 구원을 축하하기 위해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신다!
- ◀ 죄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은가?

제 3 단원

당신의 우선 순위를 바로 하기

우선 순위는 선택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철저히 살피는 일을 하여야 하는데, 개인적인 욕망, 목표 그리고 생활양식에 대한 정직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만큼 대답하여야 한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함은 차라리 참담하고 파괴적인 것이다. 욕망들은 성경의 가르침들과 사례들에 비추어 봄에서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게된 자기발견은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켜야만 한다. 경건한 삶 속에서 나온 우선 순위들은 힘이 있고,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며, 견고케 하는 것이고, 유용한 것이다. 적절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스도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빠른 변화에 의해 가속도가 붙은 계속되는 사회의 세속화는 가정, 가치관, 생활양식, 제도, 교육, 관습, 여가시간, 관계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부분들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런 경향은 도덕적인 타락의 길로 더욱 나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끼고 영적인 진리들에 목말라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에 적절한 해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세상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으로는 우리의 우선 순위들을 살피며, 그리고 나서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바울은 골로새서 4:5에서,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쾌락을 더 누리기 위해 하루하루를 이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안에 있는 개인적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다음의 네 과에서는 오늘날 사람들이 특별해 도전 받는 네 개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우선 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강조해야 할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 ◆ 재물을 제자리에 두는 것 (누가복음 16:13, 19-31)
- ◆ 인생이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겼다고 믿고 사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누가복음 17:11-19)
- ◆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겸손하는 것 (누가복음 18:9-14)
- ◆ 가능한 최고의 헌신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린 예수님께 신실해지는 것 (누가복음 22:39-48, 54-62)

제 10 과

제자리에 속한 것은 제자리에 놓기

핵심본문: 누가복음 16:13, 19-31
배 경: 누가복음 16:13-31

♠ 주 제

재물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랑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

♠ 탐구질문

개인의 인생에 부를 향한 욕망이 있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 학습목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에 얼마나 나의 우선 순위를 두었는지 확인해 본다.

텍사스의 우선 순위

- ◆ 텍사스와 미국 전역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한다
- ◆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본문개요>

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이다. 그것이 가지는 구매력은 자존감, 신분, 만족, 그리고 안정감을 돋구는 데 도움을 주며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없앨 수도 있다. 한 편으로 돈을 사랑함은 부자를 천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게 한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재물에 대한 적절한 안목을 갖게 하고 이를 잘 이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몇 년 전, 나는 러시아의 한 도시인 성 페테스부르그로 가는 선교팀을 인도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우리 팀은 수도원의 한 부분인 그 도시에서 가장 좋은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웅장한 미술품, 금, 보석, 조각들, 그리고 벽화들로 어우러진 그런 부의 진열장은 결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엄청나게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그 박물관은 러시아를 300년간 통치했던 로마노프 가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수도원의 부함과 러시아 국민들의 가난이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누가복음 16:19-31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부자만이 끊임없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욕망을 가진 유일한 사람은 아니다. 한 부자 침례교인이 죽어가고 있었다. 내 친구가 병상에 누운 이 사람을 만나보려 갔다. 그 남자는 점점 약해져서 이제는 가느다란 소리로 겨우 말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내 친구가 허리를 구부려 그의 얼굴에 바짝 다가갔다. 내 친구가 들은 이 부자의 마지막 말은, “나는 더 많은 돈을 원해요.”였다. 그가 죽어가면서 한 말이 정말 그의 인생의 주된 욕망이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텍사스 침례교인은 텍사스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해야하는 위대한 도전 앞에 서있다. 이 도전은 모든 텍사스 침례교인들이 신실하게 베푸는 관대함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잃어버린 자에게 전도하는 것은 때로는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재물을 제자리에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 질 수 없다. 우리의 소비패턴이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반영하는 반면 우리의 현금패턴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반영한다.

1) 나눠지 않은 충성심(16:13)

누가복음 16장은 부정직한 종 또는 청지기를 고용한 한 부자 지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한다. 쫓겨날 판에 몰린 이 부정직한 종은 지주에게 빚진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과 홍정을 시작했다. 그는 그들과 친해질 양으로 그들의 빚을 감해주기로 하는데 이는 자기가 해고된 후에라도 자신의 장래를 미리 안전하게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었다. 지주는 이 부정직한 종이 자기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처신을 잘 했다하여 그를 칭찬했다. 이 사건을 관대함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경우로 삼아서는 안 된다(16:9을 보라). 그러나 미래의 유익을 위해 우정을 쌓아갈 양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신실한 종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기가 받은 물질적인 축복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하나님의 바램과 욕심의 요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심으로써 이 비유의 결론에 이른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갖게 된 돈을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재물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이 비유와 선언을 했음을 누가복음 16:1이 암시하고 있다. 누가복음 16:14-15은 바리새인들도 듣고 있었음-그리고 “비웃고 있었음”(16:14)-을 지적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19-31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포함한 일련의 가르침들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14절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다(16:14).

우리가 세상은 풍부해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아메리칸 드림의 가장 공통된 우선 순위는 부와 돈과 소유이다. 풍부해 진다는 것은 시간, 재능, 에너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요구한다. 인간의 본성과 자본주의가 부추기는 욕심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실 욕심은 우리의 부함을 세상에 자랑하게 만드는 경제의 원동력이다. 우리 나라는 소비자들의 나라이다. 살기 위해 소비한 다기보다는 소비하기 위해 살아간다. 소비주의가 우리의 태도를 형성하고 우리의 생활양식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인간성을 만들어간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의 수, 우리가 정한 재정적인 목표, 그리고 우리가 성취하는 상대적인 지위를 결정해 준다. 동시에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치체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 소비주의에 대한 강조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배경이 될뿐더러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실이다.

미국의 교회들은 종종 소비주의의 과정을 옹호하고 이에 참여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다. 문화와 성경적인 진리들이 뒤섞인 것들을 교회가 쉽게 수용하고 있음을 본다. 풍성한 문화가 교회를 성공에 대한 달콤한 약속들로 유혹하는데 이는 성이 상품화되는 것과 유사한 방법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나사로 보다는 부자에 훨씬 가깝다. 가난한 자들은 우리의 교회에서 불편을 느끼며 우리의 예산은 자선행위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교회가 종종 프로그램은 풍성하지만 자선행위에는 약한 모습을 본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의 범위가 집중마케팅(한 두 가지 사역에만 전력해야 한다는 이론)이란 이름 하에 제한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경제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외되며 때로는 교회에서 조차 소외되고 있다. 덜 가진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비유는 풍족함과 소비주의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관점에서 도전해 주고 있다. 본질적으로 돈 그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는 돈의 목적에 대해 갈등하는 것이다. 돈이 우리 자신의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졌을 때, 돈이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 상실된다.

2) 돈의 가치절하(16:19-21)

이 비유는 돈이 우선 순위상 인간보다 우위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과 사회가 타락하는지를 신랄하게 보여주는 16:1-8의 예화와 연결되어 있다. 누가복음 16:19-21은 또한 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라는 잘못된 철학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다.

잘못 사용된 돈은 타락과 무서운 사회적인 결과들을 종종 초래한다.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알 수 있는 한 지방의 경험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자신의 우선 순위와 부귀에만 전심전력했던 한 남자의 모습을 그리셨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못된 돈의 사용과 사람들의 고통을 나 몰라라 했던 것에 대해 나무라시는 예수님의 비난을 바리새인들은 피할 수 없었다.

그 부자는 라틴어역 성경에서 쓰였던 대로 전통적으로 Dives 라 불리웠는데, 이 말은 “부자”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다. Dives는 하루하루를 매우 사치스럽게 살아갔으며 가난한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분리되었었다. 그는 큰 저택에 살았고 우아한 옷을 입고 거닐었으며, 가장 맛있는 음식만을 먹고 지냈다.

이 부잣집의 밖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다. 그는 초라한 행색이었고 헌데를 앓고 있었으며 배고픔으로 인해 참담한 모습이었다. 개들만이 그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그 개들이 헌 데를 핥아 주는 모습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집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이 부자는 문간에 있는 거지를 보았지만 완전히 그를 무시하였다. 부자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일지라도 그의 우선 순위를 바꾸어 놓지 못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16:31). 불행하게도 부자의 사리사욕이 자신의 인간성도 망쳐놓았다. 그에게는 가난한 이웃이 거리를 혜매고 돌아다니며, 살기 위해 이것저것 주워먹는 개들 보다도 나을게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한 인간으로서의 나사로를 향한 동정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비록 그가 나사로를 위해 무엇인가 해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부자는 아마도 잔인한 그 이상이었을 것이고 아예 양심도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풍부한 이웃 가운데 산다는 것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불결하고, 고통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 본 적이 없음을 종종 의미한다. 아마도 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사라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개와 함께 부스러기나 먹게 함으로써 만족해 한 것 같다. 남은 찌꺼기를 던져주는 것이 나사로의 가난에 도움을 주는 부자의 기부금이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해도 부자가 직접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부엌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분명히 부자는 이 불쌍한 사람을 직접 대한 적이 없었다. 모든 시대의 부자들이 호화스럽게 살면서도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일을 아주 조금 하거나 전혀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부자도 그렇게 살았다.

미국 내에서도 가난과 사람들의 필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최근의 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1980과 1990년대의 경제적인 호황은 미국의 겨우 5%에 해당하는 가정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1983년과 1995년사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볼 때 부유층의 가정경제는 17.4%의 성장을 기록한 반면, 저소득층 40%의 가정경제는 약 80%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미국내의 1%이내에 있는 부유층이 전체 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76에 기록된 비율의 두 배이다. 그 땅은 부를 가졌음에도, 미국은 세계적인 기아, 질병, 영양부족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이런 모습은 부자와 나사로의 대비가 단지 고대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텍사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지방에서, 주에서,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는 현금을 해야 한다. 다른 방식의 사역들은 무료 옷센터 운영, 음식 나누기, 직장알선,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다. 불행하게도 교회 역시 사람들의 필요에 둔감했던 과거를 잘 돌아보지 못한다. 교회, 개인, 정부, 사설 기관, 그리고 사업 계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로 되고 있다.

관대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선 순위로서의 관대함은 당신의 머리에서 당신의 생각과 함께 시작된다. 당신에게는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라: 사람들의 필요와 고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당신에게 이들 가난한 자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당신이 그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할 때, 필요를 보고도 돌아설 때, 그들의 가난에 대해 선입관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 활용기가 없을 때, 당신의 우선 순위가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알아라. 당신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우선 순위에 둠으로써 당신의 재물에 대한 생각과 행동의 양식을 바꿀 수 있다.

3) 결과검토(16:22-26)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비되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감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한다. 이것은 또한 부자가 지옥에서 겪는 고통에 대한 묘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한다.

나사로가 죽자 천사가 그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된 천국으로 데리고 갔다(16:22). 그의 죽음은 예기치 않던 병과 굶주림으로 인해 일찍 왔다. 나사로의 몸은 아마도 장사되지 않은 채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태워졌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지옥에서 당하는 부자의 고난에 대해 흥미를 자아내게 한다. 이것은 또한 부자에게 일어난 행운들과 대조해서 나사로에게 일어난 불행들을 묘사해 주는 또 다른 설명이 된다. 그들이 죽은 이후에 상황은 역전된다(16:25-26을 보라). 기껏 해야 나사로의 몸은 아무도 모르게 토기장이의 굴이나 놓여졌을 것이다. 나사로는 완전히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한편, 부자도 죽어서 화려한 장례식이 치러졌다. 그의 가족,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동료들이 그 부자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것이다. 꽃들과 기념비와 우는 사람들, 그리고 웅장한 장례행렬이 있었을 것이다. 그와 그의 재물은 함께 잊혀져 갈 것이다.

부자가 “지옥에”, “고통에”, 그리고 “고민에” 빠져 있음을 주목하여 보라(23-24).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는 결코 상상도 못했던 죽음과 삶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였다. 그가 어리석었음을 알게되었다. “고통”이란 말은 그가 새롭게 알게되고 겪게되는 일들이 얼마 강력한 가를 말해주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문턱임을 부자는 발견하였다. 그는 큰 구렁너머를 볼 수 있었고 편안히 거하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다. 부자는 천국의 상급을 받은 그 가난한 거지가 부러웠다.

부자의 우선 순위는 적어도 다음과 같이 변했다. 첫째, 부자는 돈 대신에 나사로가 천국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평안, 기쁨 그리고 즐거움을 원했다(16:23). 둘째, 부귀영화대신에, 그는 “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16:24). 세 번째, 호화스런 생활대신에, 그의 형제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했다(16:28).

부자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이기적으로 살은 결과이다.

부자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들을 가졌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부를 추구하는데 다 소모되었다. 그가 살아 온 삶의 방식의 결과가 하나의 경고문이 되어주고 있다. 부자의 알량한 자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할 것이 못된다. 이 부자는 물질적인 부와 영적인 축복을 혼돈했으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의 진정한 메시지에는 눈이 멀었었다. 이 세상에서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죽고나자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통과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몇 가지 추억들뿐이었다. 심판은 확실히 존재했고 가혹한 결과를 맞이했다.

4)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16:27-31)

이제 이 부자의 우선 순위는 극적으로 변했다. 27-31절은 부자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순위에 있어서의 이 변화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향해 나타났다. 마음의 눈이 밝히 열리자, 부자는 지상에 있는 형제들만은 자기가 영원히 겪을 이 고난에서 제외되기를 간청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경험들과 영적인 발견들을 열심히 간증했다. 그는 사회적인 부정의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삶에 대한 임박한 결과들을 친지들에게 경고할 방법을 찾았다. 한번 생각해 보라. 부자에게 일어났던 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면서 우리의 믿음을 전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일이 너무나 적은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이 세계를 텍사스에 보내고 계신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이끌어 줄 그리스도와의 경험이 시급히 필요하다. 우리는 또한 성경에 기초한 청지기직을 시급히 필요로 한다.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최근에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심판 날에 주님 앞에 서서 그 분이 나를 ‘인색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현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교회와 교단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반영해 준다.

29절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성경을 가리킨다. 29절에 있는 부자에 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메시지는 그 부자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들에 대해 기록된 말씀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씀의 전달자가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

부자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사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16:30)라고 대꾸하였다. 사실 말이지 그들에게는 죽음에서 살아난 어떤 사람이 이미 있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셨다(요한복음11장).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죽이고(요한복음 11:45-53) 나사로를 죽이려는(요한복음12:9-11) 계획이었다. 기적이 꼭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이적과 확신을 무시할 수 있다. 또 다른 깜짝 놀랄만한 이적이나 기적이 확신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인간은 좀 더 많은 정보나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기다림으로 구원받지 않고 이미 받은 정보와 은혜에 응답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야를 기다렸다. 그녀는 말하기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요한복음 4:25). 그녀는 자기가 바로 그 순간에 메시야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셔서 믿음의 기회들을 열어놓으신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삼자. 기다리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자 모두에게 위험하다.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도전을 주신다. 우리의 삶에서 돈이 차지하는 위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궁핍에 처한 사람들을 돋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석해 보면 된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문제이고 사람이 해결책이다.

질문

1.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적절한가?
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고 당신이 사용하는 재물의 다른 용도는 무엇이 있는가?
3. 돈을 기부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4. 이 비유에 나온 부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궁핍에 처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게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5.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너무 엄청나서 도저히 어떻게 할 바를 몰라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6. 사람들의 필요가 다른 사람들(시 당국, 정부 기관 등등)의 문제라고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가?
7. 그 부자가 하나님을 뵈었을 때 무슨 변명을 하였는가?
8.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교회가 나사로 보다는 부자와 같은 모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9. 지난 때문에 삶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보충설명>

■ 지옥

누가복음 16:23의 “지옥(hell)”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데스(hades)이다. 킹제임스역이나 새국제역 모두 하데스를 “지옥(hell)”으로 번역하였는데 이곳은 형벌의 장소임이 틀림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극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바리새인들의 주의를 끌었는데, 이는 부자가 지금 있는 곳이 바리새인 자신들을 포함해서 누구나 올 수 있는 끔찍한 장소라는 사실이다. 이 본문은 죽자마자 부자나 나사로나 바로 그들의 영원한 상급,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을 받았고 그 상황은 뒤바뀔 수 없음을 보여준다.

■ 물질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1. 당신은 물질주의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

심각하지 않다 조금 심각하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2. *USA Today* 지에 따르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들 중의 몇 사람들은 자기들이 천국의 한 자리를 640,000 달러에 살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

3.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성장 둘 중에서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관심을 두는가?
당신이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둘 때, 영적인 성장에 대한 당신의 관심은?

훨씬 적다 좀 줄어든다 비슷하다 훨씬 크다

<목상>

- ◀ 역사를 통틀어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다.
- ◀ 그 부자가 죽기 전에 한 마지막 말은 “나는 조금 더 많은 돈을 원해요”였다.
- ◀ 잃어버린 자에게 전도하는 것은 먼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종종 의미한다.
- ◀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물질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이다.
- ◀ 당신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우선 순위에 둠으로써 당신의 재물에 대한 생각과 행동양식을 바꿀 수 있다.
- ◀ 우리교회의 한 집사님이 최근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서서 그 분이 나를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 ◀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궁핍한 사람들을 돋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제 11 과

나의 인생이 나에게 빚지지 않은 것을 인식하라

핵심본문: 누가복음 17:11-19

배 경: 누가복음 17:11-19

♠ 주 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빚진 자로 인생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과분한 선물로 여기며 감사해 한다.

♠ 탐구질문

인생이 당신에게 무엇을 빚졌다고 생각하는가?

♠ 학습목표

당신의 인생에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들에 대해 감사하는 표현을 한다.

텍사스의 우선 순위

- ◆ 텍사스, 미국 전역, 그리고 모든 열방과 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한다
- ◆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
- ◆ 교회 내에서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본문개요>

예수님은 감사하는 것에 커다란 가치를 두시며 그것이 표현되지 않았을 때 아쉬워하신다. 열 명의 문동병자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축복에 감사를 표하고 그에게 찬양을 돌렸다. 감사는 짐이 되는 불편한 것이라기보다는 삶을 좋게 하는 자원이다.

베일러 대학을 졸업한 토누 렛짤은 에스토니아의 타르투에 위치한 골고다 침례교회 근처에서 성장했다. 그의 아버지는 교회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1944년 공산정부가 정권을 장악하자 그들은 아버지를 무고한 혐의로 체포해서는 시베리아로 보내 광산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했다. 4년후, 그들은 자기들이 실수했음을 말하고 그가 곧 석방될 것이라 했다. 그렇지만 그는 돈이 없었기에 집에 돌아올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년 반을 더 일해야 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시베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토누와 그의 아버지가 교회에서 함께 일하고 있을 때였다. 깨끗한 눈이 떨어지고 있었다. 토누의 아버지는 그 날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했고 시베리아에서 일꾼들과 함께 광산으로 걸어가던 어느 하루를 기억나게 해 준다는 말을 하였다. 시베리아에서는 눈에 반사되어 나오는 태양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 내는지 또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사했던 일들을 언급하였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시베리아의 눈은 희지 않고 빨갰었다는 것이다.

토누가 그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왜 눈이 빨갰었지요?”

그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발 한짝 없었으니까.”

비록 그는 신발도 신지 않고 피를 흘리며 눈 위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날이 아름다웠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삶의 여건에 관계없이, 감사를 표현해야 할 어떤 것을 항상 찾을 수 있다. 토누의 아버지는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를 묻기보다는 “감사할 것은 뭐 없는가?”를 찾아보았다. 감사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였다. 감사가 중요한 우선 순위가 되었을 때 인생은 늘 기쁨의 순간들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들에게 “빛진 게 있다”고 확실히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는 오만한 마음과 자기 인생의 여건을 불평하는 마음에서 혹은 이 두 가지 모두의 마음에서 기인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게 자격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런 생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

인생이 “당신에게 빛진 게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 유혹과 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커다란 실수들, 실책, 그리고 실패들 중의 어떤 것들은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연민에 빠질 때 발생한다. 돈, 섹스, 권력, 지위, 혹은 재물들을 누릴 가치가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확신시키는 것은 이러한 마음상태에서 나온 결과이다.

인생이 자기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빛지고 있다고 느끼는 이런 방심할 수 없는 위험한 감정의 경험에 매우 교활하게 작용할 수 있다.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도덕적인 타락들 중의 상당수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일하고 제대로 쉬지 못해서 지치고 우울해 졌을 때 찾아온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스스로에 “나는 이럴 자격이 있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파멸로 이끄는 어떤 것에 빠져들고 만다. 이러한 생각들에 대항하여 주의하라 왜냐하면 실패정도가 아니라 아예 파멸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빚진 자로 인생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과분한 선물로 여기며 감사해 한다. 감사는 유혹, 불평, 그리고 성격파탄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다.

열 명의 문동병자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다. 멀찌감치 서서 열 명의 환자를 한꺼번에 치료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다.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끔찍한 모습들 때문에 문동병자를 매우 배타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병고침을 받은 자중에서 겨우 한 명만이 감사했다는 것이 또한 놀랄만한 일이다.

1) 소리를 지르게된 여건(17:11-13)

누가복음과 다른 세 복음서들을 비교해 보면, 누가가 누가복음 17:10과 17:11사이에 분명히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다(요한복음 11장).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과 에브라임에 가서 머물렀다. 거기로부터 예루살렘과 죽음으로의 마지막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이 이 열 명의 문동병자들과 만나게 된 것이다. 이 일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있었던 일이다(누가복음 17:11을 보라).

문동병은 서서히 몸을 파괴하고 형체를 없애는 고대의 질병이었다. 이 병은 너무나 끔찍해서 문동병자가 나타나면 동정과 두려움이 섞인 욕지거리가 터져 나오고 한 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문동병자들은 될 수 있는 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살았다. 사회는 그들을 추방당한 자로 여겼다. 문동병에 걸린 사람들보다 육체적으로 더 안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이 없었다. 초자연적인 간섭 없이는 도저히 헤어나올 가망이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소망 없이 살아갔다.

이들 열 명의 남자들도 그들의 질병 때문에 한 테 뭉친 것이었다. 그들은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17:12) 공손하게 말했다. 그들의 의료적인 필요와 사회적인 필요가 멀다는 이유로 인해 내팽개쳐 질 수 없었다. 그들이 큰 소리로 계속해서 간청했음을 누가의 묘사를 봐서 알 수 있다. 그들의 외치는 울부짖음은 그들이 얼마나 자기연민과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를 말해준다.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의 평판과 능력을 그들이 알고 있었음을 또한 암시해 준다(17:13을 보라).

2) 명령을 하게된 연민의 마음(17:14)

이 병자들을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감동되었다. 여기에는 5:12-15에서 예수님이 문동병자를 만졌던 것처럼 이들을 만졌다는데 암시가 없다. 그는 단지 기적이 일어나도록 말을 했을 뿐이다. 그는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명하셨다(17:14).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고 깨끗해 졌다는 말도 없다. 그러나 문동병자들이 순종했다는 사실이 이들이 예수님과 그의 능력을 매우 존중했고 믿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5:12-16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문동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를 제사장에게 보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열 명의 문동병자를 제사장에게 보냈고 가는 와중에 모두 고침을 받았다. 이 기적들간에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아무 차이가 없다. 단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차이라거나 특

별히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그들이 깨끗함을 선포할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제사장에게로 보낸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레위기 13:45-46; 14:1-9), 제사장만이 깨끗함을 증명하는 건강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방의 유일한 위생관리원이었다. 믿음으로 그들은 순종했다. 제사장에게 가던 와중에 문동병이 떠나가는 등꼴이 오싹한 형언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다. 이 위대한 의사가 그들의 부패해 가는 봄을 고쳤고 산 지옥 같은 형벌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해 주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데 예수님의 명령 한 마디가 전부였다. 그 명령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3) 만나러 오게 한 양심(17:15-18)

문동병자들 중의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축복의 근원을 알게 되었다. 감사를 표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 노력했음을 주목해 보라. 감사하는 것도 시간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감사를 표하는 것은 가끔은 불편하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나음을 받은 그 한 명의 문동병자는 돌아와서 예수님을 직접 뵙고 감사를 하였다. 그는 “예수의 발아래 엎드려 감사했다...”(17:16). 감사와 기쁨은 손과 장갑처럼 함께 간다. 이 사람은 기쁨에 차며 감사했다. 이 경험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보도록 하자.

첫째, 감사는 행동으로 표현되었을 때 가장 의미 있다. 열 명중의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쏟아놓았다. 그가 취한 육체적 행동은 직접적으로 치료를 경험한 자에게서 나오는 그런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감사가 생각하고, 확신하고, 태도를 갖추는데서 머무르지 말고 행동하는데 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는 하나의 생각이 아니고 행동이 되어야 한다.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것도 칭찬할 만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노력해서 이를 개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칭찬할 만한 것이다. 기적은 육체적인 것이었지만, 돌아어서서 예수님께 다시 달려올 정도로 감사함이 넘치는 내적인 순결함에 그 승리가 있는 것이다. 이 사람만이 더 위대한 자가 된 것이다. 그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는 그가 받은 축복을 당연시하지 않았다. 선물뿐만 아니라 이를 준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함으로써 감사를 행동으로 표한 것이다. 이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도 다른 아홉 명과 마찬가지로 가서 봐야 할 가족, 찾아 볼 친구, 방문해야 할 이웃들, 돌아가야 할 집, 그리고 양육해야 할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를 축복해 주셨던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이었다.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비록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할지라도 감사를 표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 병자가 기도하던 것을 정확히 주셨다. 그는 아마도 고침을 받은 자가 다시 돌아와 감사를 전하는데 드는 노력과 에너지를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그는 문동병자들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들이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17:17)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 속에 있다.

감사는 우리의 기도생활의 생명과 같이 중요한 부분이다. 아버지께 나아와 그의 놀라웁고 능력 있는 축복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 하여 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실 때 그는 무덤 앞에 서서 기도하셨다. 그의 기도에는 이런 말이 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요한복음 11:41).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깊게 들으신다.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함이 없이 하루하루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정죄하기를 마지않던 아홉 명의 문동병자들 보다 나을게 전혀 없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장 적게 깨달으리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본문은 감사를 표한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외부인이요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사마리아인이 열 명의 문동이 그룹 중에 끼었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편견은 가열되고 심화되었었다. 아마도 나머지 아홉은 짐작컨대 좀 더 종교적인 가치관을 지닌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누가는 기적에 대해 감사하는 반응이 기대했던 사람들에게서가 아니고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마음의 상태가 인종이나 종교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 이방인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였다. 이 메시지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인데 아마도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몰고 간 이스라엘의 거절에 대한 예언이었던 듯 싶다.

문동병자들에게는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그들의 공통된 불행 때문에 함께 연합될 수 있었다. 개인의 공통적인 인간성에까지 내려가면 사람들은 그들을 갈라놓았던 문제들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그것에 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하는 태도가 이 사람을 그 그룹에 받아들이게 했지 않았나 생각된다. 외모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열 사람 중에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었으나 내면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인간의 심장에서 나오는 영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다.

내가 아주 존경하는 리지 필립스라는 젊은 여성 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나는 그녀의 부모의 목사였었다. 그녀의 아버지 게리 필립스는 The Baptist Standard 지의 재무위원이었다. 그녀는 다른 육체적 결합과 함께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녀는 지금 하워드 폐인 대학에 재학중이며 공부도 잘하고, 예술에도 뛰어나며 사교적인 그런 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으며 사람들을 끄는 인간적인 매력도 함께 지녔다. 눈과 다리를 24번 이상 수술했고, 수백명의 의사들이 방문했으며, 수 많은 치료과정들과 많은 약들을 복용한 후인 지금도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들과 선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가끔 감사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감사는 생활양식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반영해 준다.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여건 가운데에서도 하는 것이다.

삶은 축복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런 축복들은 어떤 좋은 기회를 잡게 되었을 때, 기대치 않았던 수입을 갖게 되었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무엇을 성취했을 때. 누구에게 인정받았을 때, 그리고 비극 가운데에서도 여러 통로를 통해 온다. 우리는 이런 모든 축복들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의미보다 훨씬 더 한 것이다. 감사의 가치는 존경을 받아 본 사람들만이 그 진가를 안다. 감사는 배워지는 것인 동시에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다. 사람은 그것을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안다.

4) 회개에 이르게 한 확신(17:19)

예수님은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17:19). 허셀 흉스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NIV 역에서는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되어있음, 역자주)는 말의 헬라어적 의미는 **병을 치료하다 혹은 구원하다**는 의미를 다 포함한다고 말한다. 열 명이 모두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다시 돌아왔던 한 명만 구원받았다고 결론짓는 것도 합당하게 보일 수 있다. 그는 육체적인 나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도 받았다.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고 동시에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인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가장 양심적인 반응이 감사이기 때문이다. 바리새인의 모습은 감사치 않음이 감사하는 말속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했음을 보라(18:11).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 미사일도 감사치 않음으로 인해 오는 결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해 줄 수 없고, 감사치 않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가 살아 갈 수 없으며, 감사치 않는 가족들이 없이는 가족이 유지될 수 없으며 감사치 않는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이 없다. 감사의 능력 없이는 기독교 자체가 기능을 성공적으로 발휘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들에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생이 당신에게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

1. 감사치 않는 마음들이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데 일조를 하는가?
2. 감사치 않는 마음이 어떻게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까?
3. 감사가 영혼의 온도계라고 밀하는 게 왜 맞는 밀일까?
4.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5. 감사하는 마음은 선물을 향해 더 큰가 아니면 이를 주는 사람을 향하여 더 큰가?
6. 어떤 방식으로 예배와 감사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가?
7. 어떤 방식으로 감사가 문제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가?

<보충설명>

■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텍사스 치례교인들은 감사하는 조건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 이러한 축복들을 아래에 열거해 보았다:

- ⇒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 ⇒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
- ⇒ 예산과 선교지원이 늘고 있다
- ⇒ 기관들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 ⇒ 모든 연령 대에 유익을 주는 자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 ⇒ 행정부 임원진들의 지도력이 뛰어나다
- ⇒ 선교에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이 강한 후원을 받고 있다
- ⇒ 모든 형태의 예배양식을 허용하는 의식이 늘어가고 있다
- ⇒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한 복음전도와 제자훈련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
- ⇒ 많은 소수민족을 전도하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 ⇒ 모든 단계에 맞는 신학적인 훈련의 기회들이 제공되어지고 있다
- ⇒ 평신도 신학지도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다
- ⇒ 많은 사역의 통로들이 열리고 있다
- ⇒ 교회와 목회자를 돋는 일이 잘 되고 있다
- ⇒ 앞선 기술의 사용이 강화되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는가?

감사한 것들 10가지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들에게 감사했는가?
1.		
2		
3.		
4.		
5.		
6.		
7.		
8.		
9.		
10.		

<목상>

- ◀ 감사는 짐이 되는 불편한 것 이라기 보다는 삶을 좋게 하는 자원이다.
- ◀ 토누가 그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왜 눈이 빨갰었지요?” 그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발 한짝 없었으니까.”
- ◀ 인생이 “당신에게 빛진 게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 유혹과 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
- ◀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빛진 자로 인생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과분한 선물로 여기며 감사해 한다.
- ◀ 감사는 하나의 생각이 아니고 행동이 되어야 한다.
- ◀ 감사는 우리의 기도생활의 생명과 같이 중요한 부분이다.
- ◀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인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가장 양심적인 반응이 감사이기 때문이다.
- ◀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장 적게 깨달으리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감사했던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

제 12 과

당신이 진정 훌륭하다 해도 겸손하라

핵심본문: 누가복음 18:9-14

배 경: 누가복음 18:1-14

♠주 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함을 깨닫고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더 많은 자비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특성이다.

♠탐구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려는 유혹을 피할 수 있을까?

♠학습목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만이 그 분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인식하고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해본다.

텍사스의 우선 순위

- ◆ 텍사스, 미국 전역 그리고 모든 열방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 ◆ 교회 내에서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본문개요>

하나님의 자비에 겸손히 반응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기도생활,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열쇠가 된다. 이것은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할 가치관이다. 선한 행위가 구원의 바탕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 앞에 엎드러질 때만이 구원받고 그 분의 주인 되심에 굽복할 수 있게된다.

한 젊은이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였다. 그가 이제 첫 설교를 하게 되었다. 자랑스럽게 조금은 거만하게 강대상에 나아가서는 그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설교를 마쳤을 때 그는 실패한 느낌을 받았다. 자기자신과 회중에게 큰 실망을 느꼈다. 강대상을 내려오면서 그는 온전히 겸손해진 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걸어나왔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인생에서 나오는 경험을 갖고 지혜롭게 이야기한다, “애야, 네가 강대상에서 내려올 때 모습처럼 올라갔으면, 넌 올라갈 때 모습처럼 내려왔을 게다.”

겸손은 인생에 대한 하나의 접근방법인데 이를 온전히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 겸손해지기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는 일단 당신이 겸손해지면, 다시는 그것에 관해 교만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다시 교만해 진다면, 당신은 그것을 잊게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겸손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겸손은 최고의 미덕이고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공통된 기반이다. 당신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갖게 될 때,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갈 것이고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이다.

1) 커다란 대조(18:9-10)

이 비유에는 서로 다른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한다. 두 사람 다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있었다. 그 신앙심 많은 유대인은 하루에 세 번 기도를 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것이며 잘 예배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예수님이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로 이 바리새인을 두고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다(18:9).

바리새인이란 “분리된 자들”을 의미한다. 신약시대 당시, 그들은 종교단체인 동시에 정치집단이었고 얼마정도의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이에 속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엄하게 지킬 것을 고집했다. 그들의 뿌리는 기원전 2세기에 일어났던 하시니즘운동에 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헬라문화를 억지로 심으려 했던 헬라화주의자들에게 반기를 들고 유대교의 관습과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고집했다. 이러한 운동에서 태동한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관습과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킴으로서 존경을 받았으며 많은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다른 종교집단들 보다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고 유대인의 통치기구인 산헤드린에 자신들의 대표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훈련된 경건한 삶의 대명사였다. 그들은 도덕성에 있어서도 유대 관습을 지키는데 있어서도 흄 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유대교다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중의 몇몇은 다른 사람들, 특히 세리나 창기들처럼 율법을 자기들만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오만하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처럼 되었다. 게다가 비록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이 그 동기가 되었었다. 대부분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반대자였고 그에게서 비난과 질책을 받았다(마가복음 12:38-40; 누가복음 11:37-52; 20:45-47).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세리들은 평판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다. 로마정부가 세금징수의 일을 이 장사꾼들과 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이 장사꾼들은 일정액을 로마의 금고 (publicum이라 불리움)에 지불해야 했다. 그래서 이들이 세무 공무원(수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 불렸고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다. 이들은 다시 세금 징수원들을 고용하여 세관에서 일하게 하고 각종 세금들을 받아내게 했다. 토지세(land tax), 인두세(poll tax), 성전세(temple tax), 수입세(import tax), 통행세(road tax), 교량세(bridge tax)등이 있었다. 일반시민들은 수입의 30-40%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세리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살던 그 지방 출신이었으며 그래서 잘 알려진 자들이었다. 그들은 사기성 세금을 징수했고, 거짓 의무를 부과했으며, 과잉징수를 하고, 강탈하기도 하고, 입막이용 돈도 쓰고, 대체적으로 마피아 형태의 조직 폭력단을 운영하였다. 세리들은 요구된 것 이상으로 세금을 걷어서 그 남는 돈은 자기들이 가졌다. 무엇보다도, 세리들은 로마에 충성하는 반역자들과 같이 미움을 받았다. 그들은 저주를 받았고, 멸시받았으며 따돌림을 당했다.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는 칭찬하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질책하신 것이 믿겨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덕적인 사람과 부도덕한 사람, 용납 받는 자와 거절당하는 자를 비교함에 있어 바리새인과 세리간의 비교보다 더 큰 대조를 보이는 비교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선하지 않고, 속이며, 로마에 편드는 반역자들을 도덕적으로 당당하고, 올바른 시민이며, 종교계의 지도자격인 바리새인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신 것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2) 자기 의에 빠짐(18:11-12)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는 그 중심을 보게 하신다. 니고데모와 같이 겸손한 바리새인들도(요한복음 3:1-21) 물론 있었으나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이 바리새인이 대다수 바리새인들의 대표격이다. 그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깊은 그의 기도동안에 “나는” 이란 말을 네 번이나 사용했다(누가복음 18:11-12). 바리새인은 처음에만 하나님을 언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혼자 이야기했다. 핵심적으로 이야기해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를 예배하지는 않았음을 암시해 준다. 하나님과 그의 관계는 율법적인 지식과 의지적인 확신 이상으로 깊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 멸시하고 그들을 정죄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는 확실히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계급과 인종에 대한 그의 모든 편견들은 그의 기도에 나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가장 안 좋게 보이는 항목들을 거론했다. 그는 그들의 필요에 자신을 관여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다.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신분이 확립되었기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잘 보이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성전의 높은 곳에 따로서서 그는 예배의 기도로서 자신의 의의를 높이는 유창한

암송을 했다. 그는 기도를 인도하는 자기 같은 사람을 가진 것이 하나님과 성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행운이라고 느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성취와 도덕적인 행위에 있어서 최고의 모범이었다. 나는 그가 강도도, 도둑도, 악을 일삼는 자도, 간음한 자도 아니고 십일조와 금식을 정말로 하는 자임을 믿는다. 그는 그의 종교에 충실히 사람이었고, 나라에 충성한 사람이며, 마을에서도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 자타가 공인하듯이 그는 훌륭한 시민이요 종교계의 지도자였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주로 그는 자기의 선행에 의지해서 자기의 명예와 신분을 유지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함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다. 자신이 그렇게 잘났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해 질 수 있었겠는가? 그는 그렇게 될 수도 없었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겉모양만 잘 보이려는 의도가 통하고 칭찬도 받았다. 이게 그의 모습이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범하지 않은 죄들을 열거하는데 매우 신중했다. 그는 교만하게 자신의 미덕을 치켜세웠다. 그는 하나님을 “나에게 빚진 게 있다”고 할 정도로 율법의 요구이상으로 더 열심히 지켰다. 그의 자랑스런 기도에서, 그는 자기가 세리 즉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바리새인은 세리를 그가 멸시하는 유형의 한 사람으로 거론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자랑가운데 이 바리새인이 실제로 기도를 하였는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에도 자백되는 죄들이 모두 기도하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일 때가 많지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들을 다루기 싫어할 때 기뻐하지 않으신다.

3) 거룩한 회개(18:13)

세리의 기도 역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보게 한다. 슬픔과 고통의 감정을 표현한 그의 말속에는 열정이 들어있다. 세리는 욕심과 부정직, 비인간성이 판치는 천하고 나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있다고 해도 아주 조금밖에 미덕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 이 세리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단지 얼굴을 내밀기 위해 성전에 왔던 것에 반해 이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러 성전에 왔다. 겸손함으로, 이 세리는 자신의 선함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갔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나 바리새인의 앞에 있다는 것에 대해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겸손함으로 그리고 자신이 가치 없는 자임을 느끼며 “멀리 서서” 있었다(18:13).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그것과의 차이를 주목해 보라. 첫째, 세리는 자신에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 둘째, 그는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 셋째,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죄된 성격에 대해서만 자백했다. 그는 마치 이 세상의 죄인이 자기 혼자뿐이며 자기만큼 타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기도했다. 네 번째 차이점은 그가 겸손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 육신의 행동이 영혼의 상태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는 슬픔과 회개함 속에서 “자기의 가슴을 쳤다”(18:13). 그는 자기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들려지도록 기도했다. 그는 너무나 깊게 뉘우치는 나머지 영혼 깊숙이에서 정직히 기도하였을 뿐이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뭔가 빚진 게 있다고 느낀 반면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믿었다. 세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에만 자신을 비

교했다. 하나님에 다가가는 방식이 바리새인과는 정반대였다.

세리의 기도는 이와 같았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18:13). 이 세리는 그의 죄 된 과거-속임수, 부정직 그리고 강탈-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그의 인생은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다. 그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정직하게 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그런 깨달음을 솔직히 그리고 정직하게 표현했던 것이다. 우리의 죄성에 비해서 너무나 순결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쳐 자비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암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것은 죄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는 것이다. 육은 “내가 미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욥기40:4)라고 말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 하소서”(시편 51:1)라고 울부짖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이사야6:5)라고 기도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누가복음 5:8)라고 간청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죄인이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세리의 겸손과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마음은 그가 그 날 하나님을 만났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반면, 바리새인은 만나지 못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이름은 들먹였지만 자기를 죄인으로 보지 않았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에 너무나 압도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도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의 자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느꼈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할 필요도 없이 늘 자비로우시다. 인간은 이미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만 하면 된다. 세리는 어느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다고 이해했고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

“불쌍히 여기옵소서”(18:13)라고 번역된 말은 은혜의 보좌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의 동사형이다.

은혜의 보좌는 유대인 성전에 있는 언약궤의 부분이었다. 속죄일이 되면,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것으로 흠 없고 완전한 동물의 피가 그 위에 뿌려졌다. 이것이 죄를 용서하는 수단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사이로 내려다보시며 사람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을 보셨다. 세리가 사용한 이 말의 배경을 생각하며 그의 기도를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과 죽음을 통해 용서받는 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놀라운 칭찬(18:14)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듣고있던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치 못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한 편의 드라마는 놀라운 결말을 내린다.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세리를 칭찬하시고 자기 의로 가득한 바리새인을 비난하신 것이다. 각자에게 임한 칭찬과 비난의 결과를 한 번 생각해 보라.

첫째, 바리새인이나 세리 모두에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정말로 원했던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세리도 자신이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 세리는 겸손하게 낮은 곳을 바라봄으로써 높은 곳을 쳐다볼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자비를 받게 되었다. 겸손함을 통해 그는 높임을 받았다.

둘째, 인생의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의 자비가 당신에게 미친다. 당신이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당신을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동일한 기도를 하며, 동일한 길로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고 또 그해야만 한다. 이것이 용서가 가능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어떤가, 당신과 나는? 겸손은 정의하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더 어렵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겸손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덕이 아니다. 겸손은 남보다 자신을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해 주는 명성, 권위, 권력과 같은 세상의 개념들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겸손은 종종 역량의 부족이나 자기 존중감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주인 되심에 순종하도록 해주는 내적인 미덕이다. 그러한 겸손은 교만으로부터 자유하다. 어떤 면에서, 이런 겸손은 다른 모든 미덕들의 기초가 된다고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능력과 성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달려있다.

겸손에 대한 우리의 모범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겸손하게 육신으로 오셨고(빌립보서 2:1-11을 보라), 종의 모습을 하셨으며(요한복음 13:1-17을 보라), 죽기까지 하셨다(누가복음 22:42을 보라). 그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겸손의 미덕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신다. 사실, 겸손함이 없이 거룩함을 이루기는 불가능하다. 자만심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반면 겸손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 보다 낫게 여긴다.

내가 한 교인 집의 현관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가 눈에 띠었다. 가지들이 축 늘어져 거의 부러질 지경이 된 그런 배나무였다. 내 발견한 것은 배들이 많이 열린 가지가 제일 많이 휘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가장 많이 맺는 사람이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질문

1.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나타내주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2. 당신은 기도할 때 어느정도까지 당신의 죄를 무시하는가?
3.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왜 의심하는가?
4. 어떻게 선행이 한 사람을 구원을 방해하는가?
5.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나고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선행을 들먹거리는가?
6. 다음과 같은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교인들이 있는가? :
하나님 제가 저런 인종이 아닌 것을,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을, 저와 같은 죄수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7.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정의할 때, 당신은 겸손한 사람인가?

〈보충설명〉

■ 겸손

누가복음 18:14에 나오는 “낫아지는(humbled)” 또 “낫추는(humble)”라는 말들은 모두 동일한 헬라어에서 왔다. 이 말들은 엎드리다, 낫아지다, 겸손하다 라는 의미이다.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그 강조점이 있다. 그리스도께도 이 두 가지 면-행동, 태도-에서 겸손하셨다(빌립보서 2:7-8; 마태복음 11:29).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함은 빌립보서 2:3에 언급되어 있다. “아무일 예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함은 누가복음 18:9-14에서 예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목상〉

- ◀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겸손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 ◀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를 예배하지는 않았음을 암시해 준다.
- ◀ 바리새인과 세리 모두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 받았다.
- ◀ 우리는 모두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동일한 기도를 하며, 동일한 길로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 ◀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능력과 성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달려 있다.
- ◀ 겸손함이 없이 거룩함을 이루기는 불가능하다.

제 13 과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신실 하라

핵심본문: 누가복음 22:39-48, 54-62

배경: 누가복음 22:39-62

♠ 주제

유다와 베드로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께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 탐구질문

진정한 제자도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 학습목표

주님께 신실하기로 한 나의 헌신가운데서 성장하도록 결심한다.

텍사스의 우선 순위

- ◆ 텍사스, 미국 전역, 모든 열방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 ◆ 교회 내에서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돋는다
- ◆ 기존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한다

<본문개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신실해 지도록 돋는다.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 처형 그리고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 준비하는 예수님의 경험을 조사하노라면 당신의 신실함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는 것들에 대한 비상한 발견을 하게 될 것이다.

1835년 Z. N. 모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텍사스 국경지역으로 왔다. 텍사스 침례사를 연구하는 리온 맥베스는 그를 일컬어 “텍사스에서 가장 위대한 개척 선교자, 또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개척 선교자종의 한 사람”이라 칭한다. 그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고 테네시에서 목사로 섬겼었다. 그는 그의 가슴에 비전을 품고 또 이를 이루기 위한 신실한 마음을 갖고 텍사스로 왔다. 여러 위험에 직면하면서, 그는 고통스런 상처들, 질병들, 방해하는 사람들, 거친 환경, 빈약한 양식, 이외에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싸워나갔다. 비난받기도 하고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지만 그는 텍사스에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다. 어디든지 들을 사람만 있으면 당나귀를 타고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다. 그는 교회들과 연합회들의 기초를 놓았으며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침례교 교리를 확증해 주면서 교육의 기초를 닦아놓았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모렐의 신실함이 침례교 개척 선교사로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들을 이기게 해주었다. 이런 것이 바로 모든 텍사스 침례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신실함이다.

1) 신실함을 뒷바쳐 주는 우선 순위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로 다가갈 때 계속되는 압박감이 있었다. 죽음은 다가오고 있었고, 성난 군중은 으르렁거렸으며 유대의 지도자들은 더욱 적대적이 되어갔고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였다. 새 힘을 얻으려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에게 담대함을 주고 격려해 주었던 그런 것들을 찾았고 또 사용했다. 이 놀랄만한 경험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힘으로 작용했던 적어도 네 가지의 것을 볼 수 있다.

1. 장소(22:39)

예수님의 첫 번째 자원은 젯세마네라 불린 특별한 장소였다. 하나님과의 교감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준 장소가 당신의 삶에 있는가? 예수님은 젯세마네라는 특별한 장소를 찾아내었고 그곳에서 고독함, 홀로 있음, 그리고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로 대했던 아름다움의 자원들을 찾을 수 있었다.

한 번은 내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한 관광 안내소에서 책을 뒤적이고 있을 때 나의 가족 이름(family name)에 대한 관련자료를 발견하게 되었다. 좀 더 찾아보자, 내가 스코틀랜드의 한 가문과 연결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오래된 성곽이 아직도 건재하고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읽게 되었다. 그 장소를 찾기 위해 하루 종일 힘들게 운전했고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야 했다. 방향을 살피며, 나는 그 성곽 근처에 사는 한 이웃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녀는 가문의 기념비, 성곽, 그리고 적의 공격이 있을 때 이 가문의 사람들이 피하곤 했던 호수근처에 있는 조그만 언덕의 위치도 알려 주었다. 그녀는 어려운 시기에는 무엇을 결정 내리고 전략을 짜기 위한 중요한 지점이 곳이 바로 이 언덕이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겟세마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장소였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의 종국적인 구속의 승리를 성취하기 위한 자원과 힘을 구했던 것이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의 한 정원이었다. 누가는 간단히 “그 곳”이라 불렀다(22:40).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거기에 여러 번 있었다(“습관을 죽어”, 22:39). 그리스도께서 조용한 장소를 찾던 것도 일상적인 것이었고, 고독, 기도,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를 위해 겟세마네를 찾은 것도 일상적인 것이었다. 누가복음 21:37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으나 매일 밤 쉬시기 위해 감람산에 가시곤 했음을 말해준다. 이것이 유다가 예수님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요한복음 18:1-2).

청소년 시절에 나는 금 근처에 있는 기도처소를 발견했다. 언덕 한쪽 배기애 있는 구릉지 였는데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간 자리에 가서 누워있곤 하였다. 한적하고, 개인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조용한 곳이었다. 나는 봄을 가장 좋아했는데 그 지방을 대표하는 말채나무의 하얀 꽃들이 만발한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기도(22:40-44)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22:40에서 그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46절에서 다시 그는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제자들이 평범한 사람임을 이해하셨고 그들의 약함에 동정하셨다. 극심한 슬픔과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스런 이 순간에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 중에서도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다. 그가 이 말을 두 번 하셨음을 볼 때 뭔가 능력 있고 강력한 진리가 담겨져 있음에 틀림없음을 알 수 있다.

기도는 죄를 이기고 영적인 삶의 정수를 갖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과 그의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 기도하는 중이나 그 후에는 유흑을 쉽게 이기게 되고 이를 극복하게 하는 동기 또한 매우 강하게 부여된다. 분명히, 기도는, 물론 최고의 궁극적인 수단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인내의 수단이었다. 어둠이 짙게 내리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기도를 통한 예배의 영이 유흑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후 예수님은 놀랍고도 특이한 기도의 현장에 들어가셨다. 기록된 그의 기도는 간단하고 짧았다. 이 기도는 그의 “아버지”를 부르며(22:42) 관계에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예수님의 확신 뒤에는 그의 아들을 사랑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두려운 순간에도 함께 해 주실 하나님에 계셨다.

그 “잔”(22:42)은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에 곧 다가올 십자가 처형과 시험의 육체적인, 감정적인, 그리고 영적인 고통에 대한 언급이다(마태복음 20:28; 요한복음 18:11을 보라). 그 “잔”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십자가의 처형이 내포하는 모든 고통에 예수님이 완전히 노출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고통과 슬픔에 대비해서 힘을 얻기 위하여 이 기도의 시간을 일부러 마련하였다. 그의 제자들과는 멀리 떨어졌지 만은 아버지에게까지 자기의 감정을 감추고 싶진 않았다.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해 “애쓰는” 울부짖음은 다가오는 사건의 끔찍함을 표현해 주고 있다(22:44). 미움, 거절, 비방, 고통과 죽음의 세력들이 그의 영을 위협하며 감쌌다. 그는 이러한 기분들, 슬픔 그리고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니 그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땃방울같이” 되었다(누가복음 22:44). 어느 문헌에도 기도를 그렇게 강한 어조로 표현한 곳이 없다. 죄로부터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추구의 과정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 주님에게 얼마나 시급한 것이었는지는 모든 증거들이 암시하고 있는 바이다.

3. 목적(22:42)

세 번째로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주었던 요소는 목적이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속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오셨다. 과실을 맷기 위해 썩어져야 할 씨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필수적이었고, 이 목적이 단 몇 시간의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앓어버린 바 되지 않아야만 했다. 어느 한 순간도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목적에서 떠난 적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에만 예수께서 이 목적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자기연민, 씁쓸함, 빙정거림, 임무를 회피함, 그리고 예수님 편에서 먼저 부정하는 등의 일들은 전혀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과 목적 외에 다른 출구를 찾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고 다가올 그의 목적을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4. 섭리(22:43)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동기를 부여했던 네 번째 힘은 섭리였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둡더라”(22:43). 힘을 주려고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이었다. 비록 예수님의 그후에도 계속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응답은 분명한 것이었다.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길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죽하도다..”(고린도후서 12:9)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도 동일한 교훈을 배웠다. 하나님의 섭리는 재앙을 미리 방지해 주지는 아니하지만 언제나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모습으로 온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도와준 힘의 근원이었다. 갈보리의 비극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된 이후에, 우리 주님은 자신의 결심을 강화해주고 고통을 덜게 해 주는 아버지의 강력한 힘의 근원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교리적인 진리들 중의 하나이다. 비극을 대하는 중요한 열쇠는 비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극을 대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를 돋는 그의 성령을 남겨두신 사실이다(요한복음 14:15-18). 예수님은 악이나 비극, 질병, 혹은 실망 등을 항상 없이해 준다는 약속을 결코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그의 임재를 통하여 힘을 주신다.

2) 신실함에 방해가 되는 우선 순위들

우리는 모든 위기나 결단의 순간에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잘못된 우선 순위를 택하게 되면 어찌할 수 없는 힘에 밀려 우리의 행동양식이 변하게 된다. 누가복음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신실함에 방해가 되는 세 개의 잘못된 우선 순위들을 볼 수 있다.

1. 육신(22:45-56)

신실함에 대해 다루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이 육신의 나약함이다. 모든 기도의 간구들이 끝났을 때,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가서보니 비탄과 슬픔에 지쳐 모두 잠들어 있었다. 그들의 주인을 향한 그리고 어찌면 자신들에 대한 너무나 큰 슬픔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상 깨어 머무를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정서적인 고갈은 육체적인 고갈을 가져 올 수 있다. 나약한 인간의 몸이 그 정도까지 되면 쉼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된다. 지속되는 슬픔은 휴식을 필요로 하게 되는 육체적인 피로를 낳는다. 눈이 감기고 몸이 잠을 자는 듯한 자세로 늘어진다.

교회 내에서도 어떤 이들은 잠을 너무 쉽게 자는 사람들이 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진지한 일을 하려는 때, 그 부적절한 시간에 -문자그대로 잠을 자거나 혹은 상징적인 의미에서-“잠자고 있는”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정말 자서는 안 되는 순간에도 피로로 인해 얼마나 쉽게 잠들 수 있는지 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다시 기도하도록 격려하셨다. 신실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육신, 중독, 남용, 폭음 폭식, 게으름, 욕심과 같은 유혹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 이러한 육신의 약함들이 우리의 영혼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2. 돈의 문제(22:47-48).

예수님께서 갯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간 제자들은 정서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피로로 인해 그 시련의 시간동안에 신실하게 있을 수 없었다. 반면, 유다는 돈의 유혹에 약해졌다(요한복음 12:6을 보라).

유다의 배경이나 성격등 여기서 볼 수 없는 다른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모호하고 수수께끼처럼 여겨진다. 그는 열 두명 중에서 유일하게 남 유다 출신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짐작해 보는 수 밖에 없다. 누가는 그의 이름을 사도들 중에서 맨 나중에 언급한다(누가복음 6:14-16). 유다는 이 작은 무리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 그를 묘사할 때 거칠게 표현한다. 요한은 그를 사탄(요한복음 6:70) 또는 적 그리스도(요한복음 17:12)와 동일시 할 정도였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 그리스도에 대한 유다의 열성이 식어졌고 돈에 대한 애착이 커갔다.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경험을 한 직후에 예수님은 배반에 직면하게 된다. 유다는 자기가 은화 삼십 개를 받은 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갯세마네로 갔다(마태복음 26:15을 보라). 유다가 검은 옷을 입고 성전의 군관들과 로마 군인들과 함께 조용한 정원의 기도처소에 온 것은 아마도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예수님이 잠자는 제자들을 나무랄 때 도착하였다. 유다는 우정의 인사를 하며 예수를 배반했고 이 정중한 배반 때문에 평판이 나빠졌다. 미리 짠 계획대로(마태복음 26:48) 그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알려주었다. 유다의 입맞춤은 그 두 사람 모두에게 죽음의 입맞춤이 되었다. 그가 받은 은화가 겨우 무덤 하나 사는데 사용될 것을 알기만 했었더라도 분명히 그는

좀 더 현명하게 행동하였을 것이다(마태복음 27:6-7).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 만일 유다가 비난받아야만 한다면, 예수님께 정중히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그를 배반하는 우리 모두도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다. 돈, 상품, 봉사등이 관련된 배반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우리의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고르고, 영화비를 지불하고,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고,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못 본 체 하고, 낙태를 하고, 마약을 사용하는 등의 미묘한 문제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 우리의 양심까지도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미묘한 배반들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미리 결정되고 계산되어진 것이 될 수도 있다. 유다가 얻게 된 결과는 우리의 것과 같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죄는 동일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배반은 우리의 영적인 혀약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우리를 배반하도록 이끄는 유혹들에 대하여 우리하고 하여금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할 때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부의 교활한 배반들을 없애주셨고 우리가 이것들을 자백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다는 아마도 그의 배반이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사실, 유다가 극적으로 은 삼십을 돌려주는 모습은 자기와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이 했던 것에 대한 그의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었다(마태복음 27:3을 보라). 유다는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이다. 유다의 자살은 그가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두려움(22:54-62)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잡히셨고 일련의 거짓 혐의들, 재판들, 조소, 비방이 뒤따랐다. 이런 모진 적대 행위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베드로는 그를 부인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두려움-담력 혹은 용기를 잃게된 상태-이 그 원인이었다. 누가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라고 했을 때 그는 아마도 이 겁 많은 반응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 같다(22:54). 누가는 또한 불이 지펴진 후에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앉았다”고 말하고 있다(22:55). 베드로는 불이 있는 따뜻한 곳보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군중들 틈에 끼여 있으려 하였다. 이 행동은 그 때 그 상황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아주 잘 보여준다.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비난 받을 것이었지만, 어쨌든 신실하게 남아 있으려는 동기가 벌써 사라지고 있었음이 분명하게 보인다.

베드로의 신실하지 못함은 유다의 그것과는 다르지만, 베드로가 부인한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더 실망스런 일이 아니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고 가장 친한 제자들 중의 하나였으며 적어도 유다가 알았던 그런 방식으로 그 분을 알지 않았다. 베드로는 큰소리로 분명하게 자기가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쳤었다(22:23).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자기 결심을 지키고 주님의 복음과 사역의 원인에 대해 변호할 수 있었던 세 번의 기회를 가졌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매번 실패했다. 그의 응답들을 차례로 살펴보라(22:57-58, 60):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노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들-적어도 마지막 것은-을 들으셨다. 그리고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나”(22:61). 예수님의 실망한 눈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겠는가? 베드로는 개인의 신변안전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하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없었다. 자신의 혼신을 완성할 만한 결의, 동기, 용기 또는 신실함 등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음을 주목하라. 이 두 개의 대

조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더 돋보이게 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베드로를 배신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깊은 사랑 가운데 베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리심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헌신을 지켰다.

우리는 베드로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급한 성격에, 그는 칼을 들고 저항했으며 군인들 가운데 한 명의 귀를 잘라버렸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 보복을 당할지도 모를까봐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는 또한 그 전에 그들의 미워하는 감정과 행동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의 적대감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터였다. 분노와 적개심이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아무 의지할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게 보이는 대담한 말들 속에 자신들의 두려움을 감추듯이 베드로도 그러했다. 그는 생각 없이 칼을 휘두르고 말을 했다. 그의 신실함은 희생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자기를 믿고 있는 동료 제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앞장서 나가면서도 베드로는 정말로 그들을 대면하고 갈등을 직면할 자원이 부족함을 숨겼다. 그의 두려움이 그의 결심보다 컸다.

4. 선택의 시간

그리스도께 대한 당신의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겟세마네의 이 사건들은 특정한 고독의 장소, 순종하는 기도, 부인할 수 없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능력 등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사건들은 또한 신실치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을 우리에게 촉구한다. 우리는 육신의 약함에 굴복하고 있는가? 어떤 댓가를 치르고서라도 돈을 가지려고 추구하는가? 개인적인 고통을 두려워하는가? 이 사건들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 신실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우선 순위들을 혁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 준다.

질문

1. 신실하게 살기 위하여 두려움에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2.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여 실패하지 않고 신실하게 행동할 것을 어떻게 확신 할 수 있는가?
3.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장된 말로서 우리의 약함을 가리우는가?
4. 말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과 행동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
5.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전도하지 않으면서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 공정한 일인가?
6. 허풍스런 말속에 약함을 감추려는 심리를 어떻게 설명 할 수 있는가?
7.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당신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도전들은 어떤 것들인가?
십일조, 도덕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 개인적인 거절에 직면하는 것, 혹은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행하면 수입이 줄어들까 하는 두려움 등과 같은 도전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

<보충설명>

■ 유다의 동기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유다의 동기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가능성들이 있다:

- ◀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음에 대한 유다의 실망감
- ◀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고 유대의 전통들을 깨는 것에 대한 유다의 분노
- ◀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 결국 유다의 배반은 예수님으로 하여 금 자신의 능력을 행하시고 자신의 메시야이심을 주장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시도였다.
- ◀ 재물을 얻기 위한 유다의 욕망

당신은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동기였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마지막 것, 욕심, 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모든 동기들은 돈 하나 건네 빤지 않고도 성취될 수 있었던 것들이다.

■ 신실함에 대한 나의 동기와 장애들을 체크해 보라.

- A. 나는 나의 삶 속에 신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 1.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느끼게 하는 장소
 - 2.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
 - 3. 내 인생에 대한 목적 진술서
 - 4.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인정하는 마음

- B. 나로 하여금 신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 1. 육신의 약함에 굴복하는 것
- 2.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돈을 바라는 것
- 3. 개인적인 고통과 거절당함을 두려워하는 것

<묵상>

- ◀ 하나님과의 교감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준 장소가 당신의 삶에 있는가?
- ◀ 어둠이 짙게 내리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기도를 통한 예배의 영이 유혹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 ◀ 예수님의 확신 뒤에는 그의 아들을 사랑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두려운 순간에도 함께 해 주실 하나님�이 계셨다.
- ◀ 어느 한 순간도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목적에서 떠난 적이 없다.
- ◀ 하나님의 섭리는 재앙을 미리 방지해 주지는 아니하지만 언제나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모습으로 온다.
- ◀ 비극을 대하는 중요한 열쇠는 비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극을 대하는 방법이다.
- ◀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 그리스도에 대한 유다의 열성이 식어졌고 돈에 대한 애착이 커갔다.
- ◀ 베드로의 신실하지 못 함은 유다의 그것과는 다르지만, 베드로가 부인한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더 실망스런 일이 아니었을까?
- ◀ 그리스도께 대한 당신의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